

歛齋 卞鍾運의 詩世界

이수진

차 례

I. 머리말

II. 生涯와 文學

1. 出生과 家系
2. 交遊와 閭巷文學
3. 文集 發刊과 體制

III. 詩世界

1. 使行의 旅程과 懷抱
2. 現實에 대한 不平과 諦念의 內在
3. 自然의 美感和 君子的 삶의 志向

IV. 詩文學史的 意義

V. 맺음말

국문초록: 歛齋 卞鍾運(1790~1866)은 19세기 閭巷文學의 전성기에 활동했던 譯官출신의 閭巷文人이다. 평이하면서도 격조 있고 절제된 수법의 문학을 펼친 소재는 당대를 대표하는 여항문인으로 손꼽히면서도 오늘날에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소재의 문집 『歛齋集』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소재의 생애와 문집의 체제 및 발간 경위를 알아보고, 교유관계는 문집에 주로 보이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李裕元, 尹定鉉 등 당대를 대표하는 士大夫들과 친분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丁若鏞의 외손자인 舫山 尹廷琦와의 관계라든가 여항문인들과의

교류도 확인할 수 있다.

歎齋의 詩世界の 특징은 내용상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使行의 旅程과 懷抱이다. 소재는 역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작품에서는 사행의 체험적 사실보다는 여정을 통한 내면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였다. 둘째, 現實에 대한 不平과 諦念의 內在이다. 사행 후 신분적 제약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기 보다는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는 초연적 자세를 보인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한 어조 보다는 그의 시 전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제된 수법을 통해 완곡한 어조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의 美感과 君子的 삶의 志向이다. 사회적·신분적 모순에 의해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난 후 世俗의 物慾과 人慾을 버리고 자연에서의 안온한 삶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소재만의 고상하고 격조 있는 수법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재의 시작품이 19세기 활동하던 여향문인들과 다른 독특한 특색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그의 시세계는 조선후기 여향문인들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성을 통해 당시 여향문학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국문주제어: 卞鍾運, 『歎齋集』, 閔巷文人, 譯官, 使行

I. 머리말

歎齋 卞鍾運(1790~1866)이 살았던 18~9세기는 역관, 기술관 등 신분적 제약을 받아 정치적 진출이 어려운 中人계층에 의해 성립된 委巷文學의 전성기였다. 역관무역과 상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지위를 얻었던 중인계층은 이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비록 士大夫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나 사대부와의 交遊를 통하여 詩文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과 달리 신분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격조 있고 절제된 수법으로 문학을 펼친 시인들도 있었다.

소재 변중운은 조선후기에 활동했던 譯官출신의 閭巷文人이다. 소재의 詩는 평이하면서도 격조가 있고, 신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모순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수법을 통한 그의 시작품은 당시 사회에 대한 뚜렷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재는 李裕元(1814~1888), 尹定鉉(1793~1874), 南公轍(1760~1840) 등과 같은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士大夫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들로부터 詩文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唐과 宋의 詩에 능했고 七言絶句로 지은 「楊子津」은 널리 애송되었으며 『大東詩選』에는 그의 시 4수¹⁾가 실려 전한다.

이처럼 변중운은 당대를 대표하는 여향문인으로 손꼽히면서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그가 남긴 일부 산문 작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고,²⁾ 시작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문집 『歎齋集』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生涯와 文學

1. 出生과 家系

卞鍾運의 본관은 밀양이고, 字는 朋七이고 號는 歎齋이다. 아버지 卞得圭(1764~1811)는 譯科를 거쳐 僉正을 역임했다. 1810년 宗侄 卞鍾漢이 『密陽卞氏世譜』 2卷을 낼 때, 序文을 썼다. 어머니는 贈參判 牛峰

1) 「楊子津」, 「放鶴」, 「客問余近況」, 「贈楊潭」이다.

2) 이러한 논의는 鄭炳浩의 「卞鍾運의 傳과 小說」, 『大東漢文學』 第10輯, 1998과 尹在敏의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1999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金氏 恒端의 딸이다. 우봉 김씨 가문 또한 밀양 변씨 가문과 함께 대표적 역관 가문이다. 金良洙³⁾에 따르면 身分內 결혼이 실시되었던 중인사회에서 밀양 변씨와 같이 財富과 지위를 갖고 있었던 집안의 결혼 상대는 名門譯官이거나 雜科從仕者가 아니면 武官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유달리 당대의 유력한 역관 가문이었던 全州 李氏, 淸州 韓氏, 慶州 崔氏와 많은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보아 일부 특정 집안이 세습적으로 역관가문을 형성하여 발전하게 된 것도 알 수 있다.

소재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長男 兢淵에게서 손자 春植(1831~?)을 두었다. 소재의 둘째 아들 恒淵도 純祖19년(1819)에 역과에 합격하여 直長을 지냈다. 셋째 아들은 興淵(생몰미상)이다.

그는 密陽 卞氏인데, 밀양 변씨는 조선시대 譯科 합격자 106명을 배출하여 전체 역과 합격자 순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는 역관 가문의 大族이다. 이 같은 역관 가문의 길을 연 것은 그의 8대 직계 선조인 卞應寬(1571~1642)의 동생 卞應星(1574~1652)이다. 이 집안은 光海君 5年(1613) 변응성의 역과 합격을 시작으로 高宗 28年(1891) 卞志玉이 마지막으로 합격하기까지는 약 280년의 20대에 걸쳐 수많은 역관을 배출하면서 조선조 역관의 명문으로 자리를 잡았다.⁴⁾

소재 변중운은 純祖10年(1810) 增廣試 譯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후, 당대의 文臣인 李裕元, 尹定鉉, 南公轍 등과 忘形之交를 맺고 그들이 中國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수행하였다. 특히 唐과 宋의 詩에 능했고 그가 지은 七言絶句 「楊子津」 詩는 당시에 널리 애송되었으며 『大東詩選』에도 4수가 전한다. 그의 문집 『歎齋集』에는 李裕元, 洪顯普, 李載元, 卞元圭 등의 序文이 실려 있고 韓敬重과 저자의 손자인 卞春植의 跋文이 있다. 다른 閭巷詩人보다는 자신의 신분적 모순에 대

3) 金良洙, 「朝鮮後期の 譯官身分에 관한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6.

4) 이에 대한 논의는 金良洙의 위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한 비판의식이 현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鞍峴黃榆樹記』⁵⁾ 같은 글에서는 오히려 그의 처지에 대한 갈등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歎齋集』은 밀양 변씨 利川·公州派 중의 일부가 譯官이 된 이래 만든 문집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남은 유일한 문집이 아닌가 한다.

2. 交遊와 委巷文學

歎齋가 委巷文人으로 활동하던 조선후기는 중인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士大夫와의 交遊 관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는 譯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후, 당대의 文臣인 李裕元, 尹定鉉, 南公轍 등과 忘形之交를 맺고 높이 평가 받았으며 그들이 中國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수행하였다고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사대부와의 이 같은 교유 관계를 비롯하여 소재의 문집에 주로 보이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樸溪 尹定鉉(1793~1874)은 19세기 전반기에 秋史 金正喜, 歎齋 朴珪壽 등과 교유하며 학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하였던 당대 최고 수준의 문인이자 학자였다. 그는 특히 여항인, 서얼, 서북인과 같이 소외된 인사들과 매우 친밀하였다. 윤정현은 이들의 능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처지를 마음 아파하였으며 이들이 문학을 통해서나마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윤정현과 가까이 지낸 여러 여항인들 중에서도 특히 소재는 사대부인 정현에게 당당히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있다.

지난날 사대부 가운데 현명하고 자신을 위하는 이들이 왕왕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경시하여, 오늘날처럼 監司 자리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데, 어찌

5) 『歎齋集』文鈔 권1.

감사라는 자리에 예전과 오늘의 다름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대부들의 선호가 시절에 따라 변하니, 그 선호를 살펴보면 또한 世道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은 감사 자리를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⁶⁾

위의 인용문에서 소재는 지난날의 사대부들이 외직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사대부들이 외직을 선호하는 것은 世道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사대부들이 외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던 경향을 비판하는 것이다. 소재는 매우 당당한 어조로 사대부에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이 윤정현의 요구에 의해 지어진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교유 관계가 사대부와 여항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

橋山 李裕元(1814~1888)은 1841년(憲宗7) 정시에 합격한 이래, 1845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이후, 의주부윤, 한성판윤,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요직을 역임하였다. 1845년(憲宗11) 10월에 正使 李憲球(1784~1858)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것이 첫 번째이고, 30년 후 1875(고종12)에 두 번째 燕行에 오르게 된다. 이로 보아 소재와 함께한 사행은 1845년의 일이다. 소재와의 교유 관계는 굴산이 『소재집』의 서문⁸⁾을 통해 어릴 적부터 교유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굴산은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문힐 묘역을 마련하고 壽藏碑

6) 『歡齋集』文鈔 권1, 「送樸溪侍郎定鉉出按海西序」 “然曾聞, 往昔士大夫之賢而自好者, 往往重內而輕外, 有不若今世之以是爲榮也. 豈監司之職之前後異也. 士之好尚, 隨時而移焉. 觀其好尚, 亦可以知其世矣. 今者先生以監司爲榮歟? 抑不足以爲榮歟?”

7) 이 글에 대한 논의는 김용태의 「樸溪 尹定鉉의 문학활동」,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2002을 참조하였다.

8) 『歡齋集』李裕元 序, “余少時 與卞君歡齋交…”

를 만들고자 비문과 銘을 당대 저명인사들에게 부탁하였다. 궤산의 수장비 비문은 윤정현이 지었고, 後記는 金興根(1796~1870)을 비롯한 5인이 집필하였으며, 銘은 鄭元容(1783~1873)이 지었다. 이들 7인은 생전에 수장비를 세우는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불만하면서도 사양하지 않고 써주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1825년 급제 이후 예조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던 김홍근이다.

公今何處去	공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古亦此行多	옛날에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았다
大野新涼入	큰 들에는 새로 서늘한 바람이 들고
都門驟雨過	도성에는 소낙비가 내린다.
天高懸日月	드높은 하늘에 해와 달이 걸리었고
海闊任風波	드넓은 바다의 풍파는 절로 인다.
白首無窮意	늙은이에게 무궁한 뜻이 있으니
臨歧一浩歌	갈림길에서 호연한 노래를 부른다. ⁹⁾

이 시는 소재가 양화나루에서 광양으로 귀양을 가는 김홍근을 보내며 지은 것이다. 김홍근은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는데, 그 이후에 풀려나서 1851년 좌의정, 이듬해에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舫山 尹廷琦(1814~1879)는 외할아버지인 정약용의 학문적 영향을 받아 당대에 문명을 날렸으며 당시의 碩學들이 그와 종유하기를 원하였는데, 權敦仁 · 李明迪 · 韓啓源 · 崔遇亨 · 金炳學 · 尹定鉉 등이 모두 그의 문우이다. 주위에서 여러 차례 벼슬에 오를 것을 권하였으나 방산은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이러한 방산에 관한 시가 『소재집』에 한 수 실려 있다. 「尹舫山廷琦來訪江榭」¹⁰⁾에는 강가에 살고 있는 소재의

9) 『歎齋集』 詩鈔 권3, 「楊花渡送游觀金尙書興根謫光陽」.

10) 『歎齋集』 詩鈔 권4, “此日逢君眼忽開, 三旬淹臥大江隈, 病如暗盜防猶入, 睡似高

집에 방산이 찾아왔다는 시로써 소재가 계속되는 병환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강가에 누워 있다가 방산을 만나 본다는 내용이다. 화자는 늙어서의 한가한 정취야말로 낙싯대를 드리우는 일이라 하며 스스로 俗世와 떨어져 隱居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러한 중에도 방산과의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士大夫와의 교유관계 외에도 위항문인들 사이에 있었던 시사 활동의 단면을 「癸丑暮春集崔鏡山必聞園亭」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1853년 왕희지의 난정계회를 기념해 가졌던 시회를 기념한 것이다. 원래 역관 김석준의 발의로 편지를 보내어 3월 3일 남산 老人亭에서 시회를 열고, 모인 김에 최필문의 園庭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¹¹⁾ 참여한 사람은 김석준, 최필문 외에도 장지완, 나기 등 기술직 중인들이 주축이 된 시회였다.

3. 文集 發刊과 體制

『敝齋集』은 卞鍾運(1790~1866)의 시를 모으고 文의 일부를 덧붙인 것이다. 7卷 2冊으로 되어있다. 1冊은 李裕元·洪顯普·李載元·卞元圭 등의 序文이 앞에 실려 있고, 4권으로 된 시 작품은 모두(6題246首)252수가 수록되어 있다. 2冊은 文이 수록되어 있고 3권으로 分編되어 있는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에는 序·記·題로, 「幼幼集成序」, 「慶壽金陵南相國公轍序」, 「雪广上人序」, 「必取編序」 등과 「西湖泛舟記」, 「題金人銘後」 등이, 권2에는 說·傳·論으로 「質狂說」, 「知己說」, 「談命說」, 「再生說」, 「風水說」, 「贈朱進士原」과 「角觝少年傳」, 「清溪惠圓師傅」 및 「奏

人請不來. 遠寺鐘聲衝雨至, 二陵山色捲潮迴, 沙鷗知我忘機否, 白首閒情一釣臺.”

11) 이에 대한 논의는 강명관의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202-203 쪽을 참조하였다.

論, 「蕭何論」, 「魯仲連論」, 「記融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辯解, 墓碣銘, 銘, 贊 등으로 「審象尤弼辯」, 「郭巨埋兒辯」, 「重陽登高解」, 「李敬亭墓碣銘」, 「斧銘」, 「晨銘」, 「銀海寺應運大師影贊」, 「讀書隨筆」 등이 수록되어 있다. 끝에는 韓敬重, 卞春植의 跋이 있다.

『소재집』 발간의 경위는 洪顯普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전후에 걸쳐 읊은 시와 산문은 흩어져 사라진 게 거의 대다수이고 남아 있는 것을 수집한 것은 단지 7편뿐인데, 교정이 정밀하지 못하여 갑자기 출판하기도 어려워서 그것을 보자기로 싸놓은 채로 여러 해가 되었다. 공의 손자 春植이 그대로 없어질까 두려워서 그 중에서 이미 교정이 정밀한 것만을 뽑아서 약간 편을 초록하여 먼저 각수에게 부탁하였다.¹²⁾

이 서문의 작성 시기는 己丑年 仲秋로 1889(고종26)년이다. 또한 韓敬重은 『소재집』 跋文에서 “이제 몇 십 년 후에 이르러 선생의 손자 춘식이 광인사에서 유고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¹³⁾고 하였다. 庚寅年(1890)의 일이다.

Ⅲ. 詩世界

『歎齋集』에는 권1에 五言古詩 24수, 七言古詩 10수, 권2에 五言絶句 15수, 七言絶句 24수, 권3에 五言排律 4수, 五言律詩 102수, 권4에 七言律詩 73수로 모두 252수가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오언율시와 칠언율시

12) 『歎齋集』序, “前後賦咏 散佚太多 蒐輯所存 只是七糾 而校讎未精 遽難剞劂 藏諸巾衍 已有年所矣 公之哲孫春植 懼仍泯然 就其中 已校之精者 抄錄若干篇 先付手民.”

13) 『歎齋集』跋, “今於幾十年之後適聞, 先生之孫春植甫, 刊遺藁于. 廣印社云, 遂蹶然而造之奉讀詩文.”

가 가장 많다.

소재 문집의 시작품 내용을 분석해보면 시기적으로 말년의 저작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재의 시와 산문은 흩어지고 사라진 게 대다수여서 남아 있는 것을 수집하여 간행했다는 점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歎齋集』에 실린 작품들의 면밀한 검토 없이 작시 연대를 선별리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권1과 권3에 ‘白首’, ‘翁’, ‘老’, ‘病中’ 등 노년의 삶을 드러내는 시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 제주도로 귀양 가는 秋史 金正禧를 보내는 시¹⁴⁾, 오십 년 전의 세월을 회상하는 시¹⁵⁾ 등을 통해서 말년의 저작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歎齋의 詩世界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使行의 旅程과 懷抱이다. 소재는 역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작품에서는 사행의 체험적 사실보다는 여정을 통한 내면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였다. 둘째, 現實에 대한 不平과 諦念의 內在이다. 사행 후 신분적 제약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기 보다는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는 초연적 자세를 보인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한 어조 보다는 그의 시 전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제된 수법을 통해 완곡한 어조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의 美感과 人情의 詩的 形象化이다. 사회적·신분적 모순에 의해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난 후 世俗의 物慾과 人慾을 버리고 자연에서의 안온한 삶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소재만의 고상하고 격조 있는 수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4) 『歎齋集』 詩鈔, 권3, 「送秋史金侍郎正喜謫耽羅」: 추사의 제주도 귀양은 1840년(헌종6)의 일이다.

15) 『歎齋集』 詩鈔, 권4, 「感舊」.

1. 使行의 旅程과 懷抱

소재는 역과에 합격한 후 역관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당대 문신인 이유원, 윤정현, 남공철 등과 함께 중국으로 사행을 다녀왔으며, 문집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843년 문위행을 다녀 오기도 하였다¹⁶⁾. 홍현보의 서문에 의하면 소재의 시와 산문은 흩어져 사라진 게 거의 대다수이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소재집』에서는 19세기 역관 출신의 여항문인으로서 사행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건문을 확대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하는 역관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아래의 몇 작품을 통해 사행 중에 느끼는 정서들을 엿 볼 수 있다.

二千里外鳳凰城	머나먼 이천 리 밖에 봉황성
猶隔家山半月程	선산과 떨어진지 반 달 정도라네
當面東風吹不息	지금 동풍이 쉬지 않고 부는데
慇懃一路遠相迎	은근히 한 길은 멀리 서로를 맞이하네 ¹⁷⁾

<권2, 早發玉河館>

「早發玉河館」은 이른 아침 옥하관을 출발하며 지은 시이다. 옥하관은 당시 사신들의 숙소인데 소재는 이곳에서 출발하면서 이천 리 밖의 봉황성에 있어 집을 떠난 지 반달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한 길은 은근히 서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소재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다음 작품은 「瀋陽付家書」이다.

16) 양홍숙, 「17-18세기 역관의 대일무역」, 『지역과 역사』 제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17) 『歎齋集』 詩鈔, 권2. 早發玉河館.

耕雲樓下紫薔薇	경운루 아래에 붉은 장미
二月花開三月飛	이월에 꽃을 피워 삼월에 지네
寄語東風吹漫漫	편지를 보내니 동풍이 더디게 부는데
今春留待主人歸	올 봄 머물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네 ¹⁸⁾

<권2, 瀋陽付家書>

심양에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며 지은 시이다. 고향 집의 경운루 아래 붉은 장미가 이월과 삼월을 거쳐 봄 내내 주인을 기다린다고 한다. 여기서 붉은 장미가 기다리는 주인은 바로 소재 자신일 것이다. 他地에서 鄉愁를 느끼는 소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변방에서 지내며 지은 시가 몇 수 있다. 먼저 「上元夜鏡城南樓」¹⁹⁾에서는 소재 자신을 달 가득한 정원 보름날 천리 밖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며 꿈속에서 고향의 봄을 그린다고 적고 있다. 또 「摩天嶺」²⁰⁾에서는 천리 밖에 홀로 서 있으면서도 마천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역관의 신분에 의한 잦은 사행으로 인해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던 그는 이처럼 많은 작품들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되 과도한 감정의 분출 없이 담담한 어조로 그리고 있다.

小凌河外大凌河	소능하 밖에 대능하가 있고
連夜東風春水多	밤을 이어 동풍이 부니 봄물이 불었구나
一字橋橫三百尺	일자 다리가 삼백 척 가로질렀고
蒼龍背上穩輕車	푸른 용 등 위엔 가벼운 수레가 평화롭다 ²¹⁾

<권2, 大凌河 并序>

18) 『歎齋集』詩鈔, 권2. 瀋陽付家書.

19) 『歎齋集』詩鈔 권3, “一年初滿月, 千里未歸人, 浪跡東漸海, 微誠北拱辰. 鬢邊雙嶺雪, 夢裡故園春, 處處行歌發, 昇平塞上民.”

20) 『歎齋集』詩鈔 권3, “千里能獨立, 摩天不負名, 風煙平地起, 日月半空明. 漠漠浮生小, 蜿蜿一氣盈, 西南雲五色, 知是漢陽城.”

21) 『歎齋集』詩鈔 권2. 大凌河 并序.

위의 시는 봄물이 불어난 대능하에 다다른 소재가 강을 지나갈 일을 걱정하며 지은 것이다. 하늘에 삼백 척 길이의 다리를 가로질러 수레가 평화롭게 달리고 있다고 하니 강물을 지나갈 어려움 보다는 비교적 평온한 날씨에 이곳을 지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소재는 이 시에 앞서 서문을 붙여 예전의 대능하의 모습을 그렸다. 사신들이 거친 파도를 거쳐 배를 저어 지나가거나 겨울엔 꽁꽁 언 강을 몇 번씩 넘어지며 건너갔던 일을 떠올리며 그 어려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대능하는 옛날 자주 싸우던 전장터이다. 파도가 거칠게 용솟음치고 슬픈 바람이 언제나 심란하게 일어나며 이리저리 모래가 날고 돌맹이들이 달려든다. 또한 북방의 사람들이 배젓는 일에 익숙하지 않지만 동쪽의 사신들이 이곳으로 지나간다. 사람과 말의 일행이 문득 온종일 품을 들여야 하는 곳이다. 다행히 겨울엔 얼어서 건널 수 있는데 미끄러지는 것이 고통이다. 열 번 건너면 아홉 번 넘어지고 하다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만일 유빙기라도 만나면 합쳐질 수 있고 춘빙이라도 만나면 녹아버리기도 한다. 단지 물을 만났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다. 지금 가는 비가 겨우 그치고 동풍이 따뜻하게 분다. 강물이 가까워지니 미리 고민거리가 생긴다. 홀연 긴 다리를 통해 물을 건너서 자연스럽게 마차를 몰아 지나가면 참으로 흔쾌하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 공덕을 지었다. 이에 나란히 서문을 붙이노라.²²⁾

긴 다리를 통해 홀연히 대능하를 건너기를 바라며, 알지 못하는 이가 지은 공덕에 나란히 글을 붙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遼野」²³⁾ 1, 2연에 서는 너른 들판이 바둑판처럼 평평하고 외로운 마을들이 바둑알처럼 흩

22) 『歎齋集』 詩鈔 권1, “大凌河古百戰場也. 波濤洶湧悲風常起飛沙走石. 且北方之人不習於舟楫每東使之過此也. 一行人馬輒費終日之力. 冬可以涉冰 又苦其滑也. 十步九顛有不勝惴惴焉. 若值流澌之將合春冰之將泮. 只自臨河而彷徨. 今者細雨纔歇東風吹暖. 河水將近預爲之 悶然忽有長橋跨河得從容驅車而過誠一快也 未知何人作此功德也.”

23) 『歎齋集』 詩鈔 권2, “大野平如局, 孤村散似碁, 千古多翻覆, 祇爭一着奇.”

어저 있다고 하여 요하 평원의 드넓음을 그렸고, 3, 4연에서는 오랜 세월 여러 번 뒤집혀 바뀌었으니 다만 묘수하나 두는 것만을 다룰 뿐이라고 하였다. 요하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소재의 마음에는 역사적 무게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고조선의 기름진 터전이었으며 고구려가 수많은 이민족과 치열하게 격전을 치르며 제국으로 발전시킨 곳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곳을 통해 북벌의 꿈을 키우기도 하였다. 소재는 요하 들판에 서서 간간히 보이는 과거의 흔적을 보며 옛 체취를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소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에도 사행 중에 보고 겪은 일들을 자신만의 격조 있는 수법으로 표현해 냈다.

역관 출신의 문인답게 사행 노정을 세밀하게 그리지는 않아 소재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손꼽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늦은 나이까지 사행길을 오르내리며 겪었을 소재의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으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古雅한 어조로 깊이 있게 드러냈기에 소재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現實에 대한 不平과 諦念의 內在

17세기 후반 역관 무역이 전성기에 달하면서 기술직 중인 중, 특히 역과 중인 내부에서는 계층적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밀양 변씨 가문을 비롯하여 우봉 김씨, 안동 장씨 가문들은 역관무역으로 여항 大族을 이루었으나 여항 시인이 전혀 배출되지 않은 점에서 여항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술직 중인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세력을 잃은 출신들이 현실 의식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 여항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²⁴⁾

24) 강명관, 앞의 책, 146쪽.

소재의 밀양 변씨 집안은 앞서 서술한 내용에서 보듯 대대로 역관 가문으로 역관무역 등을 통해 상당한 부를 얻었다고 전해지나, 이러한 집안의 경제적 지위는 19세기 여항문인으로 활동한 소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재집』에는 신분적 제약에 의해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난한 실상을 그린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소재의 글이 화려함 보다는 비교적 평이하고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어서인지 그의 작품에 신분적 제약에 따른 모순적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며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중인으로서의 느끼는 신분에 의한 현실 모순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²⁵⁾ 다만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함에 있어서도 강하여조 보다는 안온하고 완곡한 이조를 잃지 않았다.

『소재집』서문을 쓴 홍현보는 “아아 슬프다! 공이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것은 자못 方干과 더불어 같은 운명이었다.”²⁶⁾ 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간은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관계 진출이 좌절된 후 일생을 은기하며 산 인물이다.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소재가 使行에서 돌아온 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지내는 그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작품 「中夜聞琴」을 통해 그의 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5) 소재는 당시의 모순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시작품 외에 「鞍峴黃榆樹記」(『獻齋集』文鈔 권1)가 있어 눈에 띈다. 이 작품은 신분의식과 관련하여 봉건적 신분관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아주 잘 드러냈다. 주인을 따라 안현 마루에 오른 어린 노비가 도성을 내려다보며 서울의 오만여 가구 중에 자신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며 한탄한다. 때마침 그늘진 구석에 황유수 한 그루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 흙도 덮이지 않고 바위에 눌러 이슬도 맞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황유수를 평탄한 곳에 옮겨 심고 울창한 나무가 되기를 기원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고 훗날 훌륭한 이름드리 나무가 된다. 이에 아무개 노비가 심은 것이라 전해지나 이는 다시 잊혀진다는 내용이다.

26) 『獻齋集』序, “嗚呼, 共之不遇於時, 殆與方干共命也.”

中夜萬籟寂	한 밤 온갖 소리 죽은 듯 고요한데
何人弄清琴	어떤 사람이 저렇게 거문고를 울리나?
撼撼庭前葉	우수수 마당 앞에는 잎 떨어지고
西風吹古林	서풍은 옛 숲에 부는구나.
幽人聽未半	은자는 아직 절반도 듣지 못한 채
愀然坐整襟	근심스레 앉아 옷깃을 여미네.
寒虫秋自語	귀뚜라미는 가을엔 절로 울지만
豈盡不平音	어찌 불평한 심사를 다 말하겠는가?
皎皎天上月	하늘 위 밝은 달은
照人不照心	사람만 비추고 마음은 비추지 않는구나. ²⁷⁾

<권1, 中夜聞琴>

위의 시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 여향문인으로서의 불평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듯 고요한 밤 멀리서 울리는 거문고 소리를 절반도 듣지 못하고 근심스레 앉아 옷깃을 여미는 모습은 마치 관계 진출에 실패한 소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에 절로 우는 귀뚜라미가 불평한 심사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며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다.

杜門洞裡草芊芊	두문동의 풀은 무성하고
西風殘照一愴然	서풍에 비추는 저녁 햇살이 서글프기만 하다
當時同歸七十士	그 당시 함께 들어간 칠십의 선비들
孤節景仰五百年	빼어난 그 절개 오백 년 동안 높이 추앙하였다.
假使夷齊遺子孫	설령 백이와 숙제가 자손을 남겼어도
未必世世採薇首陽顛	대대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지는 못했으리라. ²⁸⁾

<권1, 杜門洞>

27) 『歎齋集』詩鈔 권1.

28) 『歎齋集』詩鈔 권1.

두문동은 고려 말기의 유신 72인이 신왕조인 조선에 반대하여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자 지조를 지키며 은거하던 곳이다. 지금의 두문동에는 풀만 무성할 뿐 오백 년 전의 기상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항문인으로서의 소재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비록 소재 자신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문인임에는 틀림없지만 두문동의 선비들처럼 강한 절개를 드러내지 못함을 내심 자책하며 백이와 숙제의 자손이라도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지는 못했으리라 하여 그 절개를 높이 추앙하고 있다.

한편 절제된 수법으로 완곡함을 읽지 않았던 소재는 다음 작품 「醉後放筆」 통해 눈에 띄는 면모를 보인다. 제목 그대로 취한 다음 붓으로 내려 쓴 시이어서인지 작품 곳곳에 자신이 느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천지가 개벽한 시초를 상상해보며 시작한 이 글은 7언 고시로 무려 200행에 달한다. 비록 일관성 있게 치밀하게 지어진 시는 아니지만 그 어떤 시보다도 소재의 내재된 정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지면에 제약이 있어 전문을 신지는 못하고 몇몇 구절만을 뽑아 실어보았다.

像想天地開闢初 천지가 개벽한 시초를 상상해보건대,
理氣混沌自磅礴 이기가 혼돈하여 스스로 뒹켜 있었다네.

<중략>

久矣世無三達尊²⁹⁾ 세상에 세 가지 존귀한 것이 없어진 것이 오래 되어서
天爵不貴貴人爵 천작은 귀하지 않고 인작만 귀하게 여긴다
古猶什一弱制強 옛날엔 오히려 십분의 일이라는 약자가 강자를 제압했는데
近何盡是強食弱 근래는 어찌하여 모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중략>

生來不占人一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윗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早歲成名是落魄 이른 나이에 명성을 이룬 것이 낙백이로다

29) 존귀한 것 세 가지 : 조정에서는 작위, 향리에서는 나이, 세상에서는 덕.

家中雖無甌石儲 집안에는 한 섬의 쌀도 없지만
不重千金重然諾 천금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중히 여긴다.

<중략>

慷慨多從貧窮出 울분은 대부분 빈궁에서 나오고
驕泰似與富貴約 교만과 태만은 거의 부귀함과 한 묶음인 듯하다

<중략>

精神渾墜雲霧裡 정신은 모두 운무따라 가버려서
近來十事九忘却 근래에 열개 일중에 아홉은 잊어먹는다.
天下非無志士在 세상에 뜻있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豈可妄乎在溝壑 어찌 망령되이 골짜기에 나뒹굴 수야 있겠는가

<중략>

泉石膏肓煙霞疾 자연을 벗하는 깊은 병은 연하에 병들어 있고
從古良醫無扁鵲 예로부터 뛰어난 의사였던 편작도 별 수 없었네

<중략>

霜前白雁來何早 서리가 내리기도 전에 하얀 기러기는 어찌 그리 빨리 오는가
遠出崢嶸天宇廓 저 멀리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 하늘은 드넓구나

세상에 존귀한 것이 없어진 지 오래 되었기에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덕행보다는 현실에서의 벼슬을 귀하게 여기며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당시 사회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관직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집안에 한 섬의 쌀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중히 여기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 「自笑」에 “글을 배우고 검을 배웠지만 모두 이루지 못하였으니 내 천질이 어리석고 또한 노둔함이 부끄러웠네.”³⁰⁾라고 하여 글과 검을 모두 배우고도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를 신분적 모순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천질을 탓하며 부끄럽다고 하였다.

결국 소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분적 모순

30) 『歎齋集』詩鈔 권1, “學書學劍俱無成, 天質自慙愚且魯.”

으로 제한 받고 있는 여항문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초연한 자세로 감수하며 내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3. 自然의 美感과 君子的 삶의 志向

앞서 살펴 본 사행관련 여정의 시와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시들이 절제된 감정의 표현이었다면 여기서 다루어질 작품들은 그 시의 경향이 한층 맑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소재집』서문의 내용에 의하면 소재의 시는 蒼健하고 古雅해서 경박함을 없애려 하였으며³¹⁾ 시를 지으면 성정에서 출발하여 화려함에 힘쓰지 않았고, 음운과 격조에서도 고상함을 구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고상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³²⁾ 즉 본래 소재가 지니고 있던 그만의 고아하고 안온한 시적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애당초 그가 현실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을 들은 이유도 위와 같은 경향 때문일 것이다.

아래의 작품은 자연과의 일치를 나타낸 「山窓」이다.

白雲簷際宿	흰 구름은 처마 사이에서 쉬고
幽徑少人過	그윽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적구나
松韻琴三弄	솔바람 운율에 거문고 세 가닥 어울리고
花香酒半酌	꽃향기에 술이 반쯤 취하였다
山深閑日月	산은 깊어 해와 달은 한적하고
溪淡靜風波	시냇물 맑아 물결이 조용하다
何處天機得	어느 곳에서 천기를 얻을까
春林鳥語多	춘림에 새소리가 많구나. ³³⁾

<권3, 山窓>

31) 『歎齋集』洪顯普 序, “蒼健古雅, 務祛浮靡”

32) 『歎齋集』李載元 序, “詩則性情所發不務藻華, 其音韻格調不蕲高而自高噫.”

33) 『歎齋集』詩鈔 권3.

흰 구름이 처마 사이에 걸쳐있고 길에는 사람이 적다. 또 솔바람에 거문고 소리 들리고 꽃향기에 반쯤 술에 취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자연의 한가로운 정취에 흠뻑 빠지는 듯하다. 일상적인 시어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적한 산 속 냇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고 있는 듯하여 자연과의 일치감이 매우 두드러진다.

다음 작품은 「楊子津」이다.

蘆花如雪復如烟

十里晴波不繫船

一陣寒鴻決雲去

斜陽秋色滿江天

갈대꽃 눈처럼 피고 안개 낀 듯 자욱한데

십리 잔 물결 위에 떠 있는 배

큰 기러기 한 무리 구름 속으로 날아들고

석양에 물든 가을 빛 강과 하늘에 가득하다³⁴⁾

이 시는 앞에서 이야기된 바 있듯이 소재의 시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작품으로 당시 널리 애송되었으며 『대동시선』에 실려 전하고 있다. 양자진은 양자강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소재가 使行 중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나루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자연 그대로의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물결 위에 두둥실 배 떠있고, 하늘을 보니 구름 속으로 기러기 떼들이 날아들고, 강과 하늘에 온통 석양 빛 가득하다고 하니 마치 한 폭의 그림을 펼쳐 보는 듯하다. 금방이라도 안개 낀 듯 자욱한 강 저편에서 작은 배 타고 오래 전 떠난 친구가 돌아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이는 긴장감 넘치는 어떤 강렬한 감정보다는 실재하는 자연을 차분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신분적 모순이 존재하는 18세기 말 조선후기 여항문인들은 모순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특히 소재는 유가적인 절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세속의 욕심을 버

34) 『歎齋集』詩鈔 권2.

리고 자연에서의 안온한 삶을 지향하였다.

그의 작품 「題吾愛吾廬主人壁上」에서 이러한 소재의 뜻을 살필 수 있다. 시에서 그는 “나 또한 나의 초막을 사랑하고 초막 또한 현명한 주인을 만났구나! (……) 문을 여니 산 빛이 푸르고 산뜻함은 속세의 번거로움을 막아준다.”³⁵⁾ 비록 작고 허름한 초막에 살고 있으나 속세에서의 명예나 이익을 쫓기보다는 산 빛의 푸르름과 산뜻함 그 속에서 깊고 미묘한 도를 이루며 맑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속내를 알 수 있다. 李載元은 『소재집』서문에서 “아! 선생께서 이 박완의 아름다움을 포용하여 남에게서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생활이 빈궁할 뿐이었으니 맹을양, 소창량도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선생께서 어찌 했으리오³⁶⁾” 라고 하여 빈곤한 소재의 생활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는 이같은 가난한 현실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하기 보다는 번거로운 속세로부터 벗어나 은은한 삶을 살고자 하였다.

다음 작품은 도망간 여종을 걱정하는 인정 넘치는 주인의 모습을 드러낸 「逃婢」이다.

逃婢年才十八九	도망간 노비는 나이가 겨우 18, 19세
無端隻身半夜走	이유 없이 홀몸으로 야밤에 도망갔네
一婢耳聾一婢跛	종 하나는 귀가 먹고 종 하나는 발을 질어
老妻如失左右手	늙은 아내 마치 양손을 잃은 듯
多年貧家共苦樂	여러 해 가난한 내 집에서 고락을 같이 했는데
尋常自愧恩義薄	언제나 은의가 박했던가 부끄럽구나

35) 『歎齋集』詩鈔 권1, “吾亦愛吾廬, 廬得賢主人, 滔滔遂名利, 或不能愛身, 樊廬何暇愛, 淵明樂意真, 君今千載下, 欲作葛天民, 陰雨先桑土, 春風鋪花茵, 開戶青山色, 瀟灑隔紅塵, 大江連天碧, 有時垂釣綸, 玄玄衆竅門, 獨能守谷神, 我亦愛君愛, 終當結芳鄰.”

36) 『歎齋集』序. “先生抱此璞完之美, 不求悅於人, 止竟窮陋而已, 孟深陽蘇滄浪之所不免其於先生何哉.”

九月寒衣猶未授	구월이라 겨울옷도 미처 주지 못했는데
雪風淒淒吹赤脚	눈바람 쌀쌀하게 맨 다리에 몰아치겠지
良禽擇木誰能禁	순한 새가 나무를 택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雙眸巧笑能縫鍼	예쁘게 웃던 두 눈동자 바느질도 잘했었지
汝父彷徨汝母泣	네 아버지가 방황하고 네 어미는 슬피우나
翔羽潛鱗何處尋	날아간 새 숨은 고길 어디서 찾겠는가
長廊明月盡閑春	달 밝은 날 긴 행랑에서건 봄날 채색한 누각에서건
隨處得意可安身	어디서든 마음 편히 지내겠지
他日相逢休相避	후일 만나도 피하지나 말거라
我亦羞稱舊主人	나 또한 옛 주인이라 부르는 게 부끄러우나 ³⁷⁾

<권1, 逃婢>

이 시는 귀 먹고 눈 먼 노비를 두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재의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추운 날 따듯한 옷 한 벌도 입히지 못한 채 여종을 떠나 보낸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인간적이고 곡진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題吾愛吾廬主人壁上」, 「逃婢」의 두 작품을 통해 소재는 비록 가난한 살림 중에도 그 어려움을 외면으로 표출시키기보다는 은근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양심적 지식인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또 종인으로서 신분적 모순에 부딪쳐 어렵게 지내고 있으며 문제를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식인의 품모를 잃지 않았다.

IV. 시문학사적 의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여항문학은 기술직 종인들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이 활발하게 팽창하게 된다. 18세기 송석원시사까지 이어졌던 현실 비판적 시각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고 강호 자연 속에서 자

37) 『歎齋集』詩鈔 권1.

유로운 삶을 관념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뜻대로 변하지 않는 모순된 현실의 삶을 비판하여 자연의 미적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감수하고 독자적인 시세계를 이룩해 나가기도 하였다.

구자균은 이 시기의 기술직 중인 작가로써 張之琬(1806~1858) · 金進洙(1797~1865) · 鄭芝潤(1808~1858) · 玄錡(1809~1860) · 玄鎰(1807~1876) · 卞鍾運(1790~1866) · 李尙迪(1804~1865) · 金奭準 · 崔瑄煥 등을 손꼽았는데³⁸⁾ 이들 중에서도 장지완 · 변중운 · 이상적 · 정지윤 · 현기 등은 19세기 여항문학을 대표할 만한 시인들로 평가 받는다.³⁹⁾

장지완은 성령론적 시론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으며, 때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항문인들의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지완은 신분제의 모순을 갈등하면서도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았으며 조선 봉건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간주하여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다. 현기와 정지윤은 장지완과 같이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다. 신분모순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였다. 현기는 詩作이 뛰어나 당시 사람들에게 詩神이라 불렸으나 음주, 시작으로 일생을 보냈으며 정지윤도 명석한 인물로 알려졌으나 그의 시세계는 절망으로 가득하여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였다. 이들과 달리 이상적은 빈번하게 북경을 왕래하면서 선진문물을 접하였고 그의 작품은 이러한 중국 체험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현실을 배제하고 언어의 섬세한 구사에 주력하였다.

변중운은 이상적처럼 역관으로서 활발하게 북경을 왕래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재는 사행을 통해 경험한 견문을 그리기 보다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38) 구자균, 『평민문학사』, 보고사, 1993.

39) 강명관, 앞의 책, 201-202쪽.

한편 소재는 장지완, 정지윤, 현기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면서도 완곡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소재의 사회 모순에 대한 안온적 태도는 다른 여항문인들이 보이는 부정적, 절망적 세계인식이나 언어의 미적 추구에 의한 현실 분리와는 달리 초월적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9세기 여항문인으로 손꼽히면서도 문학사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재 변종운의 시세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그의 생애와 문집의 체제 및 발간 경위를 알아보았고, 교유관계는 문집에 주로 보이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유원, 윤정현, 남공철 등 당대를 대표하는 사대부들과 친분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약용의 외손자인 방산 윤정기와의 관계라든가 위항문인들과의 교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재의 시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사행의 여정과 거기서 느끼는 생각들이다. 그는 잦은 사행 길에 오르기는 했으나 선진문물에 대한 견문을 시로 적은 것은 드물다. 이는 그의 작품이 홀어져 사라진 게 많은 이유도 있고, 체험적 사실보다는 은근한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체념의 내재이다. 이 점은 소재의 사행 전후로 나누어 그 성격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행 중에는 역관 무역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누렸던 소재였지만 사행 후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여기서 신분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고 소재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판하고 강한 어조로 현

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본래의 안온하고 고상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완곡함을 잃지 않았다. 셋째는 자연의 미감과 군자적 삶의 지향이다. 내재된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그만의 고상하고 격조 있는 수법은 여기서 매우 잘 드러난다. 자연물에 대한 감정을 마치 눈앞에 펼쳐보이듯 아름답게 묘사하되 결코 화려함에 힘쓰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서는 세속에서 벗어난 은거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재는 빈번한 사행이나 비판적 현실인식 등 시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었지만 성정에서 출발한 그의 詩作은 화려함보다는 격조 있고 고상한 분위기가 저절로 흐르게 되었다. 비록 그의 작품이 다른 여항문인들과 분리 될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의 시풍을 통해 19세기 여항시의 전형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Sojae(歎齋) Byeon, Jongwoon's(卞鍾運) Poems; Lee, Su-jin

Sojae Bycong Jongwoon (1790~1866) is a civil literary man, who was a former interpreter, active in the golden age of civil literature in the 19th century. Displaying literature of plain but noble and restrained style, he was counted as a civil literary man representing his days but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on him. Thus the present study examined his poems through 'Sojaejip,' a collection of his works.

First, this study examined Sojae's life, the structure of the collec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and investigated his associates based on people mentioned in the collection.

As widely known, Sojae was acquainted with representative high officials such as Lee Yoo won and Yoon Jeong won. The book also shows his relationship with Bangsan Yoon Jeong gi, who is a grandson of Jeong Yak yong, his exchange with other civil literary men.

The characteristics of Sojae's poems can be examined in three aspects. First, his poems describe the journey of envoy and his feelings on the journey. Sojae worked

as an interpreter but his poems express his inner sentiments on the journey rather than experiential facts in the journey. Second, his poems contain his complaints about the realities and desperation. Although he went through difficulties due to his low social status after the journey, he shows a transcendental attitude admitting his situation as his fate rather than giving vent to his resentment. His critical view of the realities is also expressed in a restricted and euphemistic tone as observed generally in his poems rather than in a scathing tone. Lastly, his poems give a poetic shape to natural aesthetic sense and human sympathy. After reconciling with the realities of social class contradictions, he gave his secular material and human desires, and sought for a peaceful life in nature. Here, we can find noble and elegant techniques unique to Sojae.

Sojae's poems do not have any remarkable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ther civil literary men in the 19th century. Even we can say that he is a typical civil literary man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u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from the typicality of his works, we can infer the general trend of civil literature in those days.

Keywords: Byeon Jong-woon, Sojaejip, a civil literary, envoy.

참고문헌

『歎齋集』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구자균, 『평민문학사』, 보고사, 1993.

金良洙, 『朝鮮後期の 譯官身分에 관한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6.

김용태, 『桴溪 尹定鉉의 문학활동』, 『한국한문학연구』제30집, 2002, 436-469쪽.

閔丙秀, 『朝鮮後期 漢詩史의 흐름에 대하여』, 『조선후기 한시 작가론 I』, 이회문화사, 1998.

양홍숙, 『17-18세기 역관의 대일무역』, 『지역과 역사』제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尹在敏,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院,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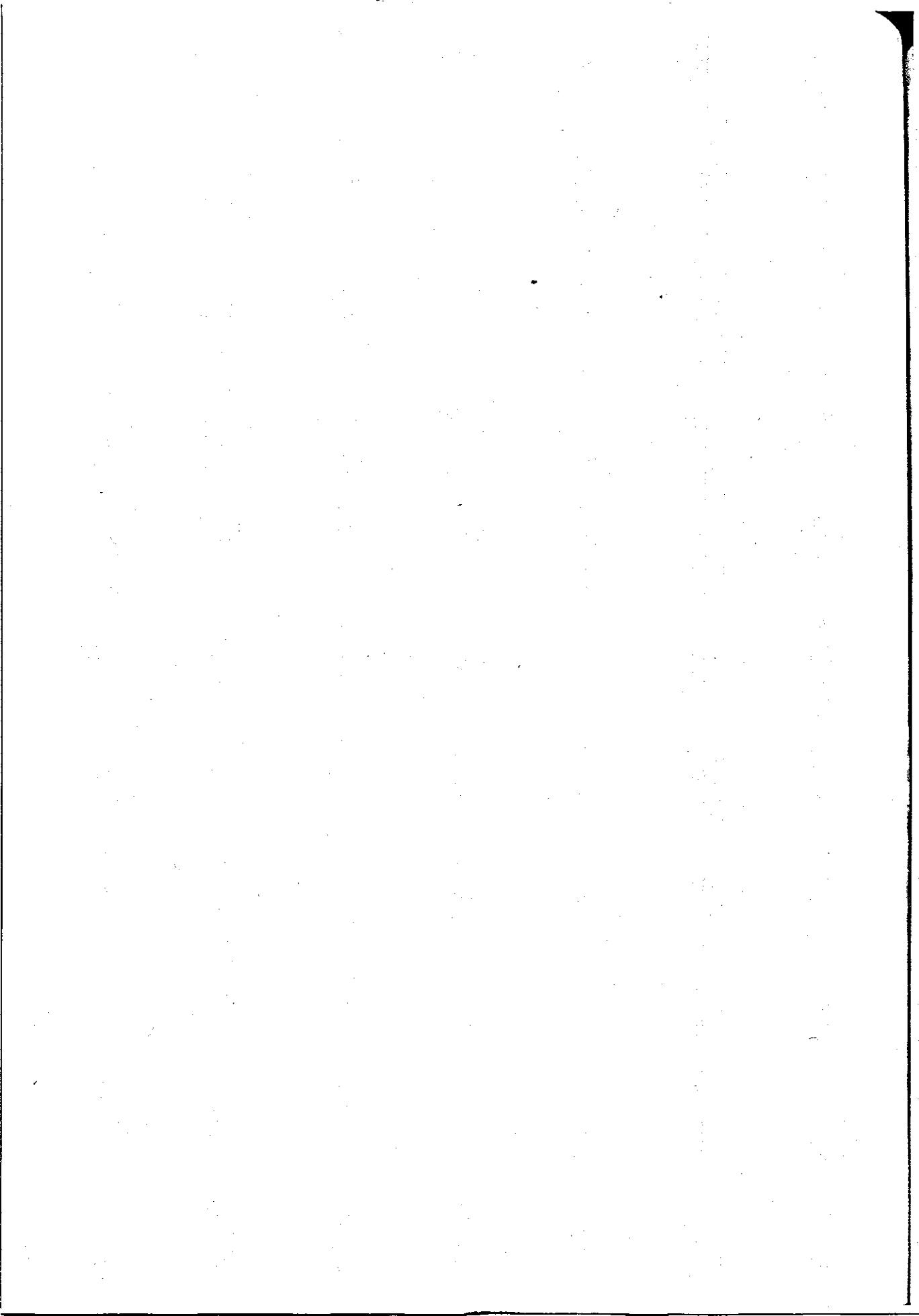
鄭炳浩, 『卞鍾運의 傳과 小說』, 『大東漢文學』第10輯, 1998, 143-166쪽.

鄭玉子, 「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末期 中人層」, 『韓沽昉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_____,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1988.

_____,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이 논문은 2005년 6월 30일 투고되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29일
게재 확정되었음.



欽齋集

心齋軒生題籤



欽齋集

心睡軒生題義



序

余少時與卞君歆齋交自喜曰我今與高士契矣自是
書牘三十年不斷及余退居鄉山其孫春植以歆齋集
序告余又喜之曰此文之屬於余余實高矣歆齋少而
學老不沽術窮而堅死不介悔遺其家惟巾衍略千卷
而已歆齋不死矣形骸歸彼精華在此編十一卷七其
詩高古避僻其文灝噩戒險至於東里子一篇使人可
喜可怒可哭可歌添園之蝶乘風飄颻往來於凌雲之
間余曾作傖白子何能跂及蓋歆齋恨人也筆端自然
有流出之氣與余心契而跡不同性同而行不契然則

肅
方
集
三

余果高歟歎齋高歟借光殘雪漫書歸之是乃三十年
前書牘之緒餘恨不使歎齋一讀之也

光緒三年丁丑孟冬月城李裕元序

序

余自童卯摳衣於歆齋下公維公古性古貌誠非菲辭
所能髣髴至於文字之間奉明日久獲叅樹齒之餘竊
有所蠡測者蓋公之爲文薰染兩京根柢韓歐淵源有
自故發筆寫懷元氣淋漓浩浩如長江不窮之勢少無
叔世尋摘點綴絺章繪句之習詩學三唐汎濫兩宋蒼
健古雅務祛浮靡隆萬以來綿弱輕清之風睨而不屑
故不合時眼是今非古未免昌黎大小慚之歎慷慨鬱
怫之氣尋常隱映於楮墨間嗚呼公之不遇於時殆與
方干共命也然而子雲身後太玄竟不爲覆瓿之具公

肅齋集

之著述有典有則足爲後學之模楷則豈可與雲烟俱
化哉居今之世欲見古作者之典型似當於是集求之
非敢阿私後之君子注眼三復自有以知之矣前後賦
咏散佚太多蒐輯所存只是七弓而校讎未精遽難削
剔藏諸巾衍已有年所矣公之哲孫春植懼仍泯然就
其中已校之精者抄錄若干篇先付手民且圖後學來
求一言以余曾忝熏炙之末故也義不敢辭謹綴夙昔
嘉誨之餘緒少抒平日誦慕之微忱云爾己丑仲秋南
陽後學洪顯普謹書

序

余在弱冠時與從弟武卿受業於歙齋卞公蓋聞卞氏文章自春堂春亭始鳴於國初盛際自其後十餘世繩武趾美家學不絕至先生而聲聞復彰奚特胚胎前光其所自得亦深且厚儘可謂芝有根而醴有源矣當時之論先生者皆曰其文根柢六經主於理勝往往多必傳之作詩則性情所發不務藻華其音韻格調不蘄高而自高噫先生抱此璞完之美不求悅於人止竟窮阨而已孟溧陽蘇滄浪之所不免其於先生何哉今其孫春植甫收遺集若干卷將付剞劂要余弁卷顧念疇

書
卷
一

昔枉費先生授指之勞而白首空空一藝無稱何足以
與論於是役也然講厥舊誼不忍孤負其意因據素懷
以叙之庚寅仲春全州李載元謹序

序

吾宗歎齋老人天分高古瀟然有出塵之想而好學卽其性也晚年手鈔舊著彙爲十卷尹榕溪師選訂三卷而序之元立雪之暇嘗讀一過見其獎誨鄭重稽未脫稿而先師捐館今其家無繕本元亦不能記焉惜哉歎翁文人自命不干榮利迨哲孫春植甫一貧到骨乃能孝悌飭躬克繩遺訓銖銖經記爲不朽計謂知其王考者莫如余謂知其王考之詩文者亦莫如余要余讎校之弁卷之辭不獲已遂就先師所定本又刪其半詩古文總上下二卷竊謂製作之出本於詩書其年代久其

事蹟繁其作者又非出於一手然猶詩止於三百書止於五十者精於傳耳夫作貴乎傳傳貴乎精作而不傳非作者之幸傳而不精亦非作者之幸也余故峻選將以精益求精非敢有違於先師編摩之藻鑑也亦非敢取舍於歛翁著述之本旨也昔先師謂元曰歛齋窮經篤學抱巨擘之質而猶不屑騁奇鬥艷以沽名譽蓋深許之也其爲詩祖述三唐文亦櫟括八家其格老其辭適其旨暢其音瀏亮其色蒼然黝然而古今治亂之會剖析名理放筆浩瀚獨造眞摯之境非得其性情之正烏可到也然則使後之讀是集者莫不知其爲必傳豈

藉元之蕪辭也哉特以家有名士恐受三十年不知之
嘲故終不能已於言然亦未嘗一毫阿私而以曩日聞
於師者述焉庚寅仲春元圭拜叙

蘭天全

歙齋集目錄

詩鈔

卷之一

五古二十四首

七古十首

卷之二

五絕十五首

七絕二十四首

卷之三

五律一百二首

歙齋集目錄

卷之四

五排四首

卷之四

七律七十三首

文鈔

卷之一

幼幼集成序

送沈魯城魯崇序

敬壽金陵南相國公轍序

送裴堂尹正鎮出宰伊川序

送樸溪尹侍郎定鉉出按海西序

贈雪广上人序

送松右出宰龍仁序

送金通判夔淳赴任大邱序

謹賀遊觀金相國周甲序

送竹棲南歸序

送水雲金侍郎赴東京尹序

必取編序

送大陵李尚書出按嶺南序

西湖泛舟記

大別山翁畫像記

目錄

一一

肅
萬
年
集
卷
之
二

洪氏永慕堂記

居山驛城堞重修記

平楚亭風雨記

泛宅記

鞍峴黃榆樹記

雲錦樓重修記

黃晚圃錫永卜居記

李氏山房藏書記

題金人銘後

卷之二

質狂說

知己說

談命說

長城說

滹沱河說

再生說

風水說贈朱進士

原

角觥少年傳

清溪惠圓師傳

柳壘傳

目錄

三

秦論

蕭何論

魯仲連論

孔蝠論

卷之三

審象尤弼辯

郭巨埋兒辯

重陽登高解

祭朴君

以善文

時約金君
亨選同祭

祭尹稷山

榮遠文

李敬亭墓碣銘

諸忠壯公神道碑銘

射虎石銘

并序

摺扇銘

斧銘

墨銘

漣川橫山里李氏精舍上樑文

銀海寺應運大師影贊

楓崖金公畫像贊

并序

讀書隨筆

七則

肅
元
集
卷
三

齋詩鈔卷之一

密山下鍾運著

五古

中夜聞琴

中夜萬籟寂何人弄清琴
撼撼庭前葉西風吹古林
幽人聽未半愀然坐整襟
寒虫秋自語豈盡不平音
皎皎天上月照人不照心

耿耿

秋雨撼秋夢庭畔鳴梧葉
耿耿壁間燈睡醒仍交睫
莊生多寓言未信化蝴蝶
悠然生百感過境同浩劫
白髮

欺初心漁樵豈勲業深山多虎豺危浪戒舟楫千載商
山老紫芝何燁燁

李靑霞

觀夏來訪

客携晴天月登樓已三更月影印前溪相對寸心明梧
葉清露滴庭鶴時有聲爲君拊素琴天籟靜中生三杯
陶然醉欲言已忘情

寄金君

秀鐘

紗窓春晝永庭草碧於烟飛來雙燕子喃喃語簷前纖
手捲珠簾南浦水如天荏苒韶光晚低回拂素絃彈出
相思曲幽情有誰憐願借東風力聲聲到君邊

秋夜

陣陣鴈南翔昨夜清霜肅滿庭
落葉聲夕陰散空谷老圃秋不老
半開籬下菊最憐天上月流光入我屋
抱膝仍長嘯甕頭酒初熟相忘江湖魚
不才山中木阮生猶未達胡爲窮途哭

宿田家

夜投田家宿松燈照籬明扶杖兩三隻
相對話春畊東隣種木綿西隣種稻杭
種稻多願雨種綿多願晴人各循其私
天亦難爲情不如聽造化勤耕待秋成

遼東管寧祠

遼東管寧祠

肅秀集卷一

吾愛管處士如水淡其心鼓枻浮滄海鋤草擲黃金一朝能割席早已見華歆擾擾三分國超然閉戶深完人誰當世遺祠獨至今澄澄祠下水鬱鬱祠前林坐臥藤穿席孤樓何處尋遼東多古蹟過此獨整襟

百感

無端百感集更深不交睫千古多豪傑豈盡樹勲業巨川多風浪欲濟無舟楫美人天一方行露又厭浥青蓮醉騎鯨添園夢化蝶乾坤一逆旅回頭卽塵劫江左尚清談燕南重遊俠何似畊南畝同受婦子饁雄心今已老白髮何須鑷欲向青山去雲霞千萬疊殘燈挑未盡

破窓風獵獵飢鼠不畏人床頭嚙空篋如何滿庭雨偏打芭蕉葉

午睡初醒

山窓醒午睡斜陽掛遠樹萬鴉方回陣蒼然野色暮忽漲前溪水盡日無人渡我坐水聲中不知山外雨漁翁捲釣歸磯苔上鷗鷺微風送遠蟬滿腹貯清露

秋暮

長風掃浮雲萬里天一色羣壑積秋葉淺深誰能測日夜樓下水東流不暫息微虫又何知四壁聲唧唧

白蓮

白蓮詩

龍虎集卷之三
如雪一朶蓮宛在水中央不染紅塵色碧天明月光微
風來何自浮動滿地香池水清且漪泛泛雙鴛鴦美人
捲珠簾空階露瀼瀼誰知今夜露來日能結霜何況寸
心結渺渺天一方

題西湖洪生畫虎

大虎山頭臥小虎負隅立一嘯冽風起百獸驚且懼自
恃勢莫當目光電燁燁不知山外路獵者如雲集

南山

平日望南山山高接長天今日登南山只是石一拳山
豈前後異居高意豁然欲知天下小須登泰山顛天上

俯人間知應一點烟

懷李夢海 一遂

君亦思我否前宵我夢君蒼蒼蒹葭水秋色已二分金
風吹不息南鴈自成羣千山木葉踈極目湖上雲歸期
知不遠空庭日欲曛入夜寒蟲語何人敢先聞

送李安宇 龍在

嶺南多奇士李子獨超然高才人不識布衣四十年落
日長安陌相逢已華顛澹澹天際雲亭亭水中蓮旅館
秋聲起塞鴻向南天留飲江樓月月明樹如烟江風儘
無情吹送故人船

蕭子雲集卷一

題吾愛吾廬主人壁上

吾亦愛吾廬廬得賢主人滔滔逐名利或不能愛身弊
廬何暇愛淵明樂意眞君今千載下欲作葛天民陰雨
先桑土春風鋪花茵開戶青山色瀟灑隔紅塵大江連
天碧有時垂釣綸玄玄衆妙門獨能守谷神我亦愛君
愛終當結芳鄰

眼花

三春病懨懨園中久未窺花開旣不見花落又不知猶
有春外春眼花發無時

清溪逢金剛僧

名山譬佛家金剛最上乘碧落蓮朶朶浩劫雪層層慧
眼昔遙望白毫光如燈一萬二千峯削玉又鏤冰最是
歇惺樓心目俱澄澄萬瀑雷長喧九潭龍爭騰普德窟
豁訝湏彌塔嶒嶸恍惚萬物肖有口說不能秋來葉葉
紅滿山晚霞蒸濁界獨超然天際淑氣凝返照衆香城
燦燦披絳繒夜壑明如晝諸天月華稜杳然迷出處有
路細如繩斷崖更無路鬼工橫鐵絙中有四大刹自古
多高僧巖際小蘭若捫蘿更攀藤第一毘盧峯有緣然
後登山人語津津遐想悠然興已矣今白首清遊恨未
曾惟有臥遊好誰畫十幅綾

讀方集卷一

古意

昨夜郎留約來訪月上時今夜月已上郎豈愆我期家
在碧山下想應見月遲明月照此心月移心不移

湖上柳

裊裊湖上柳無風自搖揚儂家湖水陰君家湖水陽相
逢湖水邊遺儂明月璫厚意非不感儂心金石剛春冰
迨未泮嫁得讀書郎況與君家婦少小共採桑人而不
如鳥湖水泛鴛鴦

重陽前夕懷丁錦圃監役

大弼

雙屏松下掩夜深明月來家釀方濃熟籬花又半開徙

倚欄頭立悠然興難裁忽聞犬吠聲沙鷗上釣臺令威
如化鶴天際共徘徊

江樓送鮑翁

宿雨洗長天山月一層高檻外大江水日夜流滔滔皎
皎雲端影誰向波底撈江沙如雪白浪花不盡淘此際
君何去江邊繫小舸絲緡安排否滄溟去釣鰲六十年
風塵歸來弊緼袍相送數君子悽愴短髮搔青門誰種
菰立都誰種桃荒村秋先到三逕半蓬蒿幸有不時需
盈樽是濁醪夜酌亂無巡相對吟楚騷古人重義氣泰
山等鴻毛苟非吾所有寧肯取一毫北斗影闌干涼風

龍虎集卷一
又颺颺遠山如相應深巷泛松濤慷慨一片心贈之袖裏刀

雪翁來訪仍卜夜

此夕喜盍簪良朋不速臨明月上東岑庭樹散清陰從容談古今清風吹我襟不覺夜已深床上三尺琴但聽絃上音誰識琴中心白髮那可禁歲月去駸駸富貴豈能淫世事任浮沉寒虫俟秋吟唧唧浮遠林斷續數聲砧遠村樹森森不畏霜威侵籬菊欲綻金千古仰陶潛幽趣誰能尋

月夜訪雪翁

興到携短筇東嶺月上初踏盡清溪響碧樹忽扶疎樹
下雙扉掩幽人夜讀書籬畔暫徘徊清風襲人裾

七古

江樓別權上舍

永佐

春日春風春草綠江樓清遊夜秉燭宿鷺千點明如雪
隔岸漁歌時斷續子規啼落山頭月空庭半開紅躑躅
此時故人天際去醉唱渭城三疊曲看君衣薜碧於蓮
自昔高才不入俗客秋楓嶽一筇還擲地奚囊鳴金玉
歸路歷登水晶山山下奇絕松花谷一區烟霞隔塵寰
半畝石田百斗粟尋常居民多皓首白雲深處黃精斲

歸來松鶴頻入夢一驢蹢躅隨一僕君今此行似登仙
愧我塵累日相促他年倘遂禽尚志物外相逢碁一局

逃婢

逃婢年纔十八九無端隻身半夜走一婢耳聾一婢跛
老妻如失左右手多年貧家共苦樂尋常自愧恩義薄
九月寒衣猶未授雪風淒淒吹赤脚良禽擇木誰能禁
雙眸巧笑能縫鍼汝父彷徨汝母泣翔羽潛鱗何處尋
長廊明月畫閣春隨處得意可安身他日相逢休相避
我亦羞稱舊主人

杜門洞

杜門洞裡草芊芊西風殘照一愴然當時同歸七十士
孤節景仰五百年假使夷齊遺子孫未必世世採薇首
陽顛

摩天嶺

域中名山幾百千摩天之嶺最屹然平日我從嶺下望
疑是嶺與天相連仰天依然天在上今我始登嶺之顛
假使嶺顛更有嶺其上無路可登天安得九萬里層梯
直接碧霄若雲烟踏盡層梯上碧霄日月星辰在我邊
俯視應與仰視同水銀濛濛遍八埏滄海杳茫只一勾
崑崙依稀小似拳曾襟灑落眼孔豁况復玉京友羣仙

陶然

鹿眼疎籬屋三間滿庭芳草雙扉關
康衢烟月身虛老
老去幽興猶未刪野蔌抽香酒初熟
臨風陶然臥蒼顏
讀未盡天下奇書看未盡域中名山
萬事雖愧不如人
人方忙處我自閒蒼松偃蹇龍鱗老
古石磅礴苔痕斑
山頭飛雨斂夕陽
循除流水聲潺湲爲語溪上簑笠翁
不待風波捲釣還

白雲臺

漢北羣峯列翠螺
白雲之臺最嵯峨
鳥道如綫掛半空
稜稜石磴捫碧蘿
同行數子次第上
老人脚力無奈何

恨不一躍登絕頂望裡山河手可摩不上雲臺非獨我
東京曾有馬伏波

月夜雅集

山頭明月影團圓山下流水響潺湲月馳于西水流東
人生得得纔百年溪南溪北攜短筇滿庭花落開瓊筵
鮑翁揮塵雪翁嘯清風陣陣吹華顛張生本是湖海客
南登漢挈北遊燕良宵一刻直千金如萍天地豈偶然
聲聲忽聞不如歸杜鵑枝上啼杜鵑東望鰲背路迢迢
更有弱水隔三千緱山未借子晉鶴閭苑那拍洪厓肩
相對渾忘塵間事朗吟南華秋水篇北海高風酒不空

栗里眞趣琴無絃今人不見古之人古人塚上草芊芊
自惜雄心猶不老老當益壯窮益堅環堵蕭然深巷裡
欲買青山苦無錢誰能從我桴海去襟懷一散萬里天

自笑

非農非工又非賈生來更羞守錢虜學書學劍俱無成
天質自慚愚且魯金臺落日秋草合土門積雪長風怒
歸來不復賦遠遊孤村寂寞深閉戶既不能萬仞大澤
斬長蛟又未能千疊深山撲猛虎前溪流水流不息來
者爲今去者古年來與世相忘久醉後何須吟梁甫啼
禽忽驚北窓夢林間蝴蝶猶栩栩

而已矣

我有數卷書恨不同學鄒魯諸君子我有一壺酒恨不同飲燕趙悲歌士一未能遂平生志白髮數莖而已矣
忽然一陣芭蕉葉上雨胡爲乎滿庭樹木秋聲起

醉後放筆

像想天地開闢初理氣混沌自磅礴倏兮忽兮來何自
混沌居然七竅鑿鼓以雷霆潤風雨萬殊一理貫脉絡
羲皇畫卦韻造字萬物始覩聖人作風自火出君子以
刑家御衆利嗃嗃然而大樸日漸散醇醪非復古醴酪
泔水橫流亭午世若非神禹誰疏瀹二帝三王傳心妙

蕭子雲集卷一

具在尚書灝而盟秦皇當日燒未盡餘者古人之糟粕
楊墨距後佛老興二家竟同歸寂寞分門異戶何須說
聖人然後無適莫舜徒跖徒鷄鳴起孳孳爲善孳孳惡
餘慶餘殃或有爽太空冥冥理難度君子小人相消長
一陰生時一陽削君子之澤時雨潤小人之澤蜂蠆蠹
如何小人澤愈長至今楚南祠莊躋天上那可摘星辰
空中妄欲起樓閣險夷雖不滯胷裏世上寧有楊州鶴
剖斗折衡亦多事六馬豈能馭朽索逢場紛紜太孟浪
辯士舌鋒俠士鏑惟是天君能泰然仰而不愧俯不忤
物之不齊物之性有底爲囊無底橐春蚕食盡原頭桑

畢竟吐絲自成縛沉澆醜郁古文章卷中英華勤咀嚼
文章雖美未聞道不傳之學明濂洛大德治世不以惠
三代後無孔明若尚論千古中興業周室方召漢衛霍
半夜楊震畏四知奈今白晝事干託事能循理卽公道
只是公道久廢格謂惟白髮真可笑鵬之始生已矐矐
頽波誰能作砥柱清霄久未聞霜鶚吳漢莫以武夫看
臨死之言儘謬謬漢法雖寬賊不赦能懲貪吏爲民瘼
憂先於人樂則後農欲有秋庠錢鑄尹鐸晉陽勤保障
寇準北門重鎖鑰偉才元無夷夏別秦猛魏允燕之恪
將帥中原頗牧誰聞今土匪猶剽掠廢四郡北多閒地

龍虎集卷一

往往流民來懇拓筐篚玉帛三千里周道年年驅四駱
牛山之木曾美矣無奈斧斤日夕斫在我浩氣不可摧
根如不厚葉先穉縮與不縮能自反吾何憚焉褐寬博
兢兢業業無造次淵何深也冰何薄看人莫以皮膚看
況是皮裡又有膜大談將決西河水世無人肯憐轍涸
賢如原憲飢蓬蒿美似昭君出沙漠澤珠忽入罔象手
萬事令人一大噓齒不角兮角不齒飛者能飛躍者躍
誰將湏彌納芥子遙望東海只一勺孫登舒嘯嵇康啞
荆卿已死漸離隴已矣乎心既役於形是非何論今與
昨英雄亦歎不自由獅子便患三日瘡工師求木營大

廈次第機闌與櫨構經綸從我心上來撲斲既勤復丹
 牘靜觀盆魚樂自由潛雖伏矣亦孔炤奕秋門下同受
 業或能專心或援繳玉必先琢方可磨米不入舂豈精
 鑿東家處子年逾笄獨守深閨待媒妁世間許多眼明
 者以槃爲鍾燭爲籥信天閒坐惟青莊隨地屈伸是尺
 蠖末勢不能穿魯縞材官強弩且莫彊起不得白地銅
 山做不得無麵餽飫此生如逢會心人興到悠然相對
 酌蜩食枯壤蟬飲露恨不當年事耕穫長安大道直如
 髮翠蓋朱輪走塵壤久矣世無三達尊天爵不貴貴人
 爵古猶什一弱制強近何盡是強食弱樂於生處不飛

去可憐紇千山頭雀不如歸去青山裡白雲深處採靈
藥又不如歸清溪上烟波濃處笠青翳生來不占人一
頭早歲成名是落魄家中雖無甌石儲不重千金重然
諾仙翁賣藥壺裡隱二叟對碁橘中樂富如可求孰不
富時有閒雲最澹泊幸得同社二三子善爲謔兮不爲
虐浮萍一任風聚散泛泛湖海無住着何劉沈謝如尚
在暗中猶可手摸索慷慨多從貧窮出驕泰似與富貴
約緩步晚食可安身人穿珠履我芒屨利器亦有摧折
時根節何須遇盤錯不必善走絃百足猶能小步夔一
脚存心不如無心好萬頃風波休驚愕一醉陶然樂天

命山無豺狼水無鰐隣里相逢不識面無口之瓠無聲
鐸半身不遂兩耳聾可笑傍人謂矍鑠矍鑠最是趙營
平八耄金城圖方略芻豢非不悅我口淡食無如採藜
藿勲業何須頻看鏡好官抱關與擊柝滕薛大夫才不
堪趙魏之老羞公綽彈瑟雖或北鄙聲弊襁不恥衣狐
貉精神渾墮雲霧裡近來十事九忘却天下非無志士
在豈可妄乎在溝壑野火春風草萋萋早發先萎花灼
灼文雖郁郁質雖野虎豹嚙豈犬羊嚙漢廷滑稽隱曼
倩齊宮吹竽混東郭泉石膏肓烟霞疾從古良醫無扁
鵲女蘿隨處可蔓生奈之何上攀喬木欣有托李白樽

蕭子雲詩卷一

前成三影月色玲瓏不捲箔老石無言能守錢蒼苔風
雨不剝落霜前白鴈來何早遠岫崢嶸天宇廓

獻齋詩鈔卷之二

密山下鍾運著

五絕

宿僧伽寺

清磬落雲端
山窓五月寒
癰僧眉似雪
無語坐蒲團

山窓曉起

春林啼百鳥
太半不知名
久作山中客
窓間臥辨聲

山行

日暮青山裏
樵歌響遠風
松間問前路
騎犢兩三童

遼野

獻齋詩鈔卷之二

蕭子雲集卷之二

大野平如局孤村散似碁千古多翻覆祇爭一着奇

黃金臺

荒臺秋草合古國夕陽孤不世昭王出何時樂毅無

題金檀園

宏道畫帖

遠山起暮煙樹色欲蒼然不盡江流碧孤帆直上天

深巷

深巷微風過幽禽處處聞落葉盈階上園童掃白雲

龍灣旅夜

風雨鷄鳴夜殘燈欲結花悄然推枕起回首望京華

桃花晚開

庭前碧桃樹三月始開花非是春風晚山陰住我家

琴湖早霧

東風催雨意濃霧滿平湖湖上青山色南宮水墨圖

清江

清江新霽雨沙鳥不勝閒兩岸蘆花月漁歌處處還

朝起簷端有花藥一瓣

東風連夜雨春事果如何爲愛山中鳥含來一瓣花

挹清樓月夜

兩岸蘆花白輕霜灑月寒夜深漁艇返棹影上欄干

待人

尺牘寄書
卷一 詩

二一

蘇東坡詩集卷二

登樓欲斷魂今日又黃昏猶待溪邊月隨君夜到門

信步

偶尋芳草去忽入白雲間倚杖松花落斜陽在遠山

七絕

贈楊如玉

如玉善畫松余嘗以一幅
綾求焉久而還猶是空幅

楊生筆法世間稀畫出蒼松大十圍綾幅披來依舊白
滿天風雨化龍飛

謝盜

蕭然茅屋碧山垠犬吠疎籬月半輪徒手入來徒手去
主人寧不愧家貧

楊子津

蘆花如雪復如烟十里晴波不繫船
一陣寒鴻決雲去斜陽秋色滿江天

過石瓊樓

流水無情落日低依然芳草自成谿
黃鸝不識春歸盡猶向林間恰恰啼

僧伽寺

松濤絕壑泛天風危石穿雲一徑通
老釋燈前休說偈印溪明月萬緣空

瀋陽途中觀獵

詩

龍牙集卷之二

駿馬爭嘶大野風輕裘小帽意豪雄雕弓滿月翻身處
果落雲間第幾鴻

早發玉河館

二千里外鳳凰城猶隔家山半月程當面東風吹不息
慇懃一路遠相迎

大凌河

并序

大凌河古百戰場也波濤洶湧悲風常起飛沙
走石且北方之人不習於舟楫每東使之過此
也一行人馬輒費終日之力冬可以涉冰又苦
其滑也十步九顛有不勝惴惴焉若值流澌之

將合春冰之將泮只自臨河而彷徨今者細雨
纔歇東風吹暖河水將近預爲之悶然忽有長
橋跨河得從容驅車而過誠一快也未知何人
作此功德也

小凌河外大凌河連夜東風春水多一字橋橫三百尺
蒼龍背上穩輕車

馬塚

荒草離離三尺堆誰藏馬骨碧山隈黃金臺下秋風路
一去涓人尚未回

瀋陽付家書

久寄書
詩

蕭子雲集卷二

耕雲樓下紫薔薇二月花開三月飛寄語東風吹慢慢
今春留待主人歸

題松巖上人壁

千尋古壁掛招提眼際滄溟小似蠡夜半龍王來聽法
滿天雷雨渡前溪

九日

黃花寂寞爲誰開佳節天涯客未迴一片望鄉臺上月
應知先照故鄉來

自柵門乘夜歸來

東望鄉關信馬回扁舟已待大江隈鳳凰城外如霜月

領得千山夜色來

醉後攬鏡口占

萬事悠然一泛觴多情最是鏡中霜
古來何限青春客
風雨蕭蕭怨白楊

書范增論後

奇計平生但撫膺
鴻門玉斗碎如冰
龍成五采依稀見
漢帝猶稱一范增

放鶴

幾年庭畔夢蓬萊
一入雲間任去來
弱水東邊瑤草月
倘能相待主人回

讀秀集卷二

春夢

一病纔蘇雨打屏今年春色苦相違
夜來夢化莊園蝶
萬樹濃花栩栩飛

登樓

鶯語綿綿燕語忙上林春色隔烟光
東風萬戶垂楊裏
車馬紛紛走夕陽

題花下美人圖

新粧纔罷採酴醾朝露未晞三兩枝
爲愛花心雙蝶宿
待他飛去立多時

高臥

風泛荷花陣陣香
北窓高臥夢羲皇
村童一隊相呼喚
去看原頭傀儡場

春歸

回首春光一夢虛
飛花落絮襲人裾
滿庭風雨荆扉掩
半炷名香數卷書

金恥庵

宜鍾

乘雪來訪

西風半夜灑輕寒
殘菊蕭蕭雪裡看
多感東隣金太史
來尋溪巷臥袁安

甲子除夕

宛如知己別天涯
無計能留赴壑蛇
一陣條風吹曉漏

久居客中
卷二
詩

六一

讀書乃學之正名也

殘燈猶結去年花

感秋風

細雨蕭蕭不肯晴
寒鴻一陣夜三更
此時深巷誰相訪
爲感秋風儘有情

歡齋詩鈔卷之三

密山下鍾運著

五律

九日登一間亭

客中逢九日江上有孤亭流水身全老黃花酒未醒沙
鷗雙岸白山雨半簾青鄉思方搖落漁歌又遠汀

客間余近況

客來談水月吾已悟盈虛萬事雙蓬鬢孤村一草廬落
花春有酒細雨夜看書窮達都無意浮雲任卷舒

華陽山下逢林秋容

斜陽山下路邂逅故人逢嶺海三年別風塵半世蹤孤
村無好酒芳草駐枯筇一面渾如夢臨歧意萬重

贈柳君煥翼

避世三清下逍遙便不歸古松因作屋流水半開扉客
到能賒酒天寒已典衣終朝煙雨裡相對兩忘機

關西剿匪

四月孤城破關西奏捷音三軍殊死戰羣賊盡生擒平
地轟雷發中天赫日臨潢池歸獸敵八域共歡心

送荷山子遊神勒寺

曾病不能遊之

曾聞神勒寺遠在大江濱塔影中天月鍾聲半嶺雲百

年多病我此日獨行君別後相思夢秋風送鴈羣

寄李滄洲 貞友

不寐憶滄洲殘燈照客愁寸心誰共語一別已經秋兩
地同看月中宵獨倚樓龍門天下壯早晚子長遊

江樓送鈞鰲子

北風吹五兩雪意滿江皋樓迴羣山伏天寒萬木號片
帆從此去短髮不勝搔指贈如鉤月滄溟可釣鰲

九龍山逢洪醉可 并序

醉可慷慨士也讀百家書喜酒好擊劒自少時
無意於當世自放於山顛水涯之間一筇雙屨

讀方集卷之三

往往樂而忘返辛未春與余作海上之遊歸隱
於黃泥之草堂雲山一別漠然若江湖之相忘
十年于今邂逅於九龍山下貂裘已弊鬢髮種
種而眉宇間十丈青霞氣隱隱猶莫之掩也蓋
心不年老氣不貌衰故客榻寒燈促膝相對論
千古英雄得失成敗之蹟或笑或歎宛然若當
日事酒酣因起舞於中庭月影婆娑溪樹葉落
忽然長嘯一聲振衣西去其捷如飛莫能追也
醉可名伶弟侄字仙可亦奇男子也

昔別渾如夢相逢喜欲狂清看池上月老惜鬢邊霜開

卷千年速傾樽萬事忘雄豪誰似汝湖海一徜徉

喜柳君

永祿帶月而至

主人雲澹泊客子月徘徊晚菊凌霜立寒潮捲雪廻百
年銷短燭萬事付深盃白首同歸約桐江一釣臺

送趙冷然之湖中

故人湖海去樽酒幾時同堂上雙親老塵間萬事窮江
雲秋似雪驛樹暮多風漠漠乾坤大浮生任轉蓬

拜漢陰先塋

四世衣冠闕牛眠漢水潯溪山交得勢松檜自成陰孤
露雙行淚終天永慕心樵童亦人子莫近墓前林

次寄長
卷三詩

三一

凝碧樓待冷然

坐數清溪路孤帆隔一灣江聲浮遠樹月色守空山野
菊如期發沙鷗自在閑夜深風浪急不必逆潮還

舊遼東

雲中高白塔客馬舊遼東天地春將暮山河路不窮林
疎明遠水野闊泛長風華表今安在斜陽鶴唳空

夷齊廟

千秋多節義最是聖之清遺廟風霜古孤心日月明商
辛終有死周粟肯偷生舊惡何曾念灤河淡不鳴

玉河謾吟

十月星輶發殊方冉冉春家山長在目 王事敢言身
懷散樽中酒謀疎橐裡銀南鴻初得意應笑未歸人

岳王精忠祠

泰山猶可撼難動岳家軍千古抱遺恨一朝隳大勲疾
風墳上草落日陣前雲臣構泉臺下何顏見道君

歸到三叉河滯雨成劍橋載詩示排悶詩仍次其

韵

三河三日雨隔岸卽天涯前路茫如海孤村泛若槎百
年身是客昨夜夢還家歸橐無長物新詩與建茶

送李君

明五赴燕

宿昔蓬弧志今朝送客情樽邊山葉下馬首塞雲平
天地三秋晚關河萬里行燕南多感慨幾處劒歌聲

琴湖泛舟

一鶴橫江去斜陽忽遠灣紅染霜前葉青浮雨後山
流水連天開孤帆盡日還定識桃源近漁歌處處閒

歸路訪白鷗道人

故人秋臥病歸客夜停舟白首經年別清樽半日留
捲簾寒翠滴高枕大江流相對機心息平沙片片鷗

山齋

遠色欲蒼蒼山翁一泛觴鶴遺雲際響梅吐雪中香
老

去琴書倦閒來歲月長
漁歌何處起世事付滄浪

江亭書懷

庭葉蕭蕭下江亭
八月秋古今同逝水天地一虛舟
卷裡方青眼樽邊已白頭
滄波能浩蕩閒者是沙鷗

登三幕寺望海樓

秋風樓下起黃葉
滿諸天海闊歸帆立
峯高落照懸何曾來
佞佛恍若去登仙
納納三千界吾身更渺然

武溪洞寓舍李東樊晚用來訪

十里君黃馬孤亭我綠樽
鍾聲雲際寺山色雨中村落
日清溪水隨人出洞門
名園無定主芳草憶王孫

亭子
本宗

室舊
宅

夜過白鷗道人

掛帆三浦月乘興欸柴荆剪燭談千古飛觴到五更天
河雙闕影風葉滿江聲鷗鷺休驚我滄浪一濯纓

秋日百祥樓

遐矚際新晴高樓一笛橫層城歸鴈度落日大江平直
北關山路安西節度營他鄉秋易感朔氣又崢嶸

古松

古松三百尺能作四隣陰獨立乾坤大曾經歲月深日
高華蓋影風動老龍吟偃蹇窮冬雪青青不改心

鄭氏別業同辦香成丈

鎮嵩拈韻

烟霞繞四隣流水自粼粼花氣能薰日鶯聲嬌轉春山
中多勝事世上少閒人谷口今千載猶傳鄭子真

離咸興

前路猶千里行人半夜醒角聲山月白市語店燈青地
闊東溟水天高北斗星林間多虎跡匹馬仗王靈

曉發洪原縣

曉發洪原縣寒鷄處處鳴朔雲平地合海日五更生依
斗心千里臨風髮數莖何愁雙嶺險只是到天平

摩天嶺

次寄長
卷三 詩

讀齋集卷三

千里能獨立摩天不負名風煙平地起日月半空明漠漠浮生小蜿蜿一氣盈西南雲五色知是漢陽城

上元夜鏡城南樓

一年初滿月千里未歸人浪跡東漸海微誠北拱辰鬢邊雙嶺雪夢裡故園春處處行歌發昇平塞上民

送秋史金侍郎

正喜謫耽羅

飄風何太急萬事一搔頭世路名爲累亭臯序屬秋君恩滄海闊吾道片帆浮惟有山窓竹清陰翠欲流

拈寰字

非是隔塵寰踈慵少往還林深禽語樂沙淨水流閒待

月仍同飲看山一解顏
依稀窓下夢化鶴入雲間

秋日江樓

一蟬鳴遠樹萬壑盡秋聲
白首逢知己清樽話半生
晚潮孤嶼出疎雨大江明
獨立紅塵外青山淡世情

土窟庵訪雪广上人

幽禽驚底事石磴響枯筇
返照明紅葉層崖黯翠松
山中知有寺雲際忽聞鍾
俗客休相訪煙霞處處封

前山

前山飛雨過濃翠滴柴荆
爲客紅塵久欺人白髮生長
堤誰放馬疎柳未藏鶯
溪水明如鏡悠然照世情

蕭子雲集卷三

金學士山莊

步步探幽境吟筇却忘還茅茨紅樹裡鷄犬白雲間
昭代身虛老芳辰興未刪主人何處去流水自空山

挹清樓月夜與韓覺軒

應洪共賦

窓間人盡宿短髮獨登樓野稻霜前熟村砧月下浮
酒心偏入夜羈思最難秋古渡多風浪蘆花一繫舟

歲暮別尹訥叟

河一

相逢知不遠別意老逾眞柏葉酬殘歲梅花隔一春
窓前微有雪天下更無塵寂寂柴門掩書中見古人

訪李南溪

短筇來十里樵唱又斜暉亂石疑無路閒花不掩扉微
風芳草倦宿雨小溪肥知是漁翁返山前白鷺飛

秋窓謾吟

壯心猶不老短髮忽如童籠樹秋烟白翻江夕照紅聖
賢黃卷裡山水古琴中坐數簾間影西風一陣鴻

山逕

短筇隨意去一徑入雲深石白臨流面楓丹向日心村
煙懸夕杵溪雨灑秋陰無語松間立閒聽百鳥音

南溪宅賞菊

籬花開寂寞村酒酌慇懃白屋能留客青山不負君清

蕭子雲集卷三

江秋洗月深壑夜藏雲萬里前程遠寒霜灑鴈羣

次趙秋齋秀三平壤韻

關右多名勝箕城最媚人三千年古國十萬戶遺民夜
市長懸月春江不動塵井田殷制度溝洫尚如新

楊花渡送游觀金尚書興根謫光陽

公今何處去古亦此行多大野新涼入都門驟雨過天
高懸日月海闊任風波白首無窮意臨歧一浩歌

信步

聲聲黃鳥慢信步出松門遲日槐陰靜微風麥浪翻閒
雲能作岫繁葉欲藏村隨意茵芳草時聽野老言

春日卽事

幽徑春風晚黃鸝處處聞
吟筇溪上月樵斧嶺頭雲
方得村醪熟相逢野老欣
青山吾自愛非是欲離羣

朴君

以善過訪

蹙音來寂寞苔徑掃花塵
疎髮明如許餘生醉幾巡
青雲今一夢碧樹又殘春
萬事風埃苦桃源欲問津

獨酌

東風吹不盡芳草遍天涯
卷裡紅塵遠樽前白日遲
深啼鳥樹潑潑養魚池
定識農家喜朝來雨一犁

秋思

西風鳴一雁秋思正迢迢山色皆黃葉江聲又晚潮斷
霞收落日遠嶺倚層霄瀾瀾循除水清琴不待調

秋夜送客

如輪天上月相對一樽寒惜別秋將晚知音古亦難疎
星明遠樹飛雨洗層巒白首悲歌發霜花滿去鞍

鎮國寺

遠客披黃葉孤僧掃白雲舊遊如昨日幽境易斜曛磬
落諸天迴溪回細路分三乘雖未悟老去厭茹葷

細柳店逢荷山子

萬縷垂楊裡逢君又送君乍看芳草合忽惜小溪分遠

宙蒼蒼日孤村漠漠雲綿蠻枝上鳥向客似殷懃

山海關

飲馬長城窟風烟斷客魂層雲吞大海落日滿中原辭
命行人職驅馳 聖主恩白頭多感慨獨立撫乾坤

甲辰上元回到灣上

萬里南來雁相逢鴨水濱歸程猶絕塞今夕又佳辰風
雪梅寒士關山月故人寸心依北斗昧爽促征輪

登收功門樓

乾坤秋寂寞關塞客淹留落日三江水西風百尺樓半
生都是夢萬事不須愁聞爾沙邊鳥如何盡白頭

久寄三詩

十一

清川江別李君 穆如

關外難爲客江頭又送君
踈燈愁照影孤鴈惜離羣
片月心同白明楓酒易醺
一帆天際去目斷萬山雲

小屋

邊門限一灣小屋只三間
多病秋光晚微官公事閒
鏡中新白髮夢裡舊青山
不與斜陽約深林鳥亦還

張雲渠

曦相

來話舊遊

秦城雄萬古遼野豁層霄
風雪同馳驅關山不寂寥
十年如昨日千里忽今宵
君亦塵埃裏棲棲黑貂

留贈桃花洞主人

不訪桃花久今朝更問津花紅含宿雨池綠絕纖塵名
勝非無地清閒自有人樽前惟一笑爛漫見天真

不寐

謂是天將曉簌簌打五更微雲流月影孤雁灑秋聲兒
女書中面關山夢裏程悄然仍不寐大道少人行

春暮

花落三春暮樽清萬慮空疎籬鳴驟雨遠樹度微風今
古長流水乾坤不繫篷悠然醒午夢孤鶴響雲中

步月

千村皆寂寞片月獨徘徊我屋清溪上門前有釣臺酒

蕭子集卷三

心楓欲染詩境菊先開江水東流去誰能一挽回

龍灣口占

邊城春已晚蒼蘚繞階斑離別佳人老昇平戍卒閒欲
浮江上樹自在霧中山暝色誰先唱樵歌處處還

慶君

致學來訪

一別江湖久蹙然喜足音清風攜滿袖皓月坐披襟可
惜秋光晚渾忘夜色深黃花雖澹泊猶自傲霜心

示錦圃

地僻春猶在山花四月開低吟披亂草緩步上高臺遠
樹迎雲去斜陽渡水來無心沙上鳥曾不染塵埃

訪大別山翁不遇

一路王孫草孤村處土扉園童迎客拜庭鶴向空飛採
藥知何處停雲尚不歸松間惓惓立落日滿漁磯

樓頭

樓頭長嘯立簾日下亭亭鳥影衝烟白嵐光洗雨青何
山藏傲骨無藥住顏齡榮利濃於酒英雄亦不醒

和金竹樓

家淳

南歸韻

秋風吹不已去路草離離欲別青山暮相看白髮衰文
章祇自惜榮利復何爲拄杖清溪上浮雲間後期

秋夜

寒窓人不寐燈火稍慙露欲秋光結鍾方夜色分餘
生同逝水萬事總浮雲天氣能先識南歸有鴈羣

病中

一病先秋至秋歸病不歸溪雲心澹泊林雨夢依微黃
葉藏書屋蒼苔守釣磯東籬休采菊霜下見花稀

偶吟

黃鸝綠樹陰靜聽一披襟酒對靈均醉詩同子固吟虛
舟橫古渡明月照深林何處松風起床頭有素琴

同李少石學士

載元

游三幕寺

二客門前到孤僧寺外迎林深山日暮天闊海雲生花

雨春長在心燈夜自明下方人盡宿古塔聽鍾聲

滿月臺

昔我過荒苑松山欲暮時興亡前代事景物後人悲
夜火明金椅秋烟臥石螭須看臺上月月滿豈無虧

送金松右大令

命根南歸

年光今已暮去路又漫漫萬事歸田好餘生送客難
疎梅方欲綻積雪不勝寒回首南山色瑤琴更一彈

贈荷山子

遠客携明月幽人臥白雲楓溪秋已半燭短夜將分
明滅螢流影炎涼雁有羣聽君歌一曲酒醒意猶醺

閒來

閒來抱膝吟一徑薜蘿深浪靜鷗翻雪籬疎菊散金寒
霜欺短鬢明月照初心世事相忘久清樽與古今

贈湖上翁

愛君湖上隱繞屋薜蘿陰天地容多病溪山入短吟楊
花三月暮煙雨一村深自有閒中趣淵明蓄素琴

掩扉

松下雙扉掩庭除淨一塵遙峯將落日大地尚餘春野
闊爭流水山深不見人會心何必遠魚鳥卽相親

江樓送客

坐惜春光晚尤難送客情禽聲風欲碎山色雨新晴一
別祇今日相逢倘此生欄頭愁獨立極目大江橫

夕陽更賦一詩付從人之後發者

汀草如烟碧長江不盡晴柳深黃鳥慢苔淨白鷗明壺
裏非無酒途中孰與行知應南館夢夜夜漢陽城

李君一藏流嘉山

嘉山千里遠病未送君行平地風波起長天鴈鶩橫白
頭相憶苦青眼幾時明一路生秋草其如感慨情

喜逢雪翁

一別三年久相逢夢寐疑片冰壺裡在亂雪鬢邊垂雨

龍虎集卷三

歇鶯聲滑天長鶴去遲停盃看落日後會倘能期

深巷

心非愛隱淪巷僻少來人門掩三分草琴藏一寸塵
水流隨地勢禽語各天真雨後南山色悠然眼界新

贈李君

宜教

通家曾累世聯榻又多年過境春如夢窮途雪滿顛
長嘶轅下驥特立水中蓮天際微風起浮雲過眼前

杏津泛舟

雨從楊子歇潮到杏津雄帆落千山月窓開萬里風
天高心共遠海闊眼初窮直欲乘槎去遙登織女宮

峽中

峽路多紆曲林深返照明懸厓松偃蹇亂石水縱橫村
婦驅牛去樵童傍虎行醇風猶可見田畔讀書聲

夜坐

天地秋將至溪山夜已深微風吹短髮明月照疎襟壺
不分清濁書能見古今雙飛雲際鶴忽灑半空音

雪翁自江上來慰余病仍留飲

白首今何夕相逢感舊情携樽來十里欹枕坐三更溪
樹風留響微雲月透明連天江水碧鷗鷺是平生

贈滄洲

次寄書
卷二詩

龍牙集 卷三

於人多閱眼惟子可論襟姿貌溫如玉文章鍊似金通
家三世諄麗澤百年心一曲前溪水盈盈渡後深

曉行山路

秋色曉峻嶒前山碧一層泉聲鳴愈靜嵐影滴還凝知
有藏雲寺頻逢汲水僧豁然開眼界朝日始東昇

重陽

佳節那虛度登臨散鬱陶山園平野闊水接遠天高映
日楓全醉凌霜菊亦豪茱萸看仔細白髮不勝搔

酒醒

酒醒心自遠流水響潺湲三徑無人到雙扉盡日關斜

陽明白髮宿雨洗青山天際微風起浮雲亦不閒

暮春齋居

東風吹細雨野色散輕陰一枕黃鸝語前溪綠樹深
酒忘當世事書讀古人心自有知音在鳴泉石上琴

恥庵約林南下

應相

來訊宋硯農

準玉

踵至

已罷紅塵夢誰爭白首閑蘭亭觴曲水謝朓宅青山
溪靜游魚樂林深倦鳥還高譚方欲轉樵笛遠松間

韓雲南正言

容德

歲暮歸里

年光留不得今又送君行嶺雪連天白江冰夾岸明
難爲臨別語只自數歸程立立津頭樹無情似有情

讀書集卷之三

酬林好古上舍 敬洙

由來天下士古亦少其人浮世名能瞰窮途意獨真樽
邊將落日席上自生春笑向青山去閑雲稍可親

涉園

山林眞小隱吾亦愛吾園落葉深三徑斜陽入一村衣
冠多俗累耕鑿是君恩遠樹微風過啼禽靜裡喧

書贈湖南李生

乾坤吾已老冰雪爾能來殘臘無多日滾宵更一盃崢
嶸天上月皎潔閣中梅此際心相照人間絕點埃

山窓

白雲簷際宿幽徑少人過松韻琴三弄花香酒半醺山
深閑日月溪淡靜風波何處天機得春林鳥語多

五排

箕子廟

殷室有三仁東方得一人明夷來罔僕白馬去爲賓麥
秀悲風遠田分舊制均牖蒙八條設訪道九疇陳圖像
衣冠古祠宮草木春牧樵誰敢近俎豆尚如新遺井毬
門路孤城碧水濱似椽楓老筆追慕立貞珉

楓皇金忠文公追豎

廟碑其文可讀

蛙聲

次賢集卷三詩

十七

初疑處處出靜聽檻前池萬籟深更後千林落月時高
人當鼓吹痴帝問官私閣閣翬崖樂淒淒科斗悲自尊
井底妄忽產晉陽危牡菊揚灰恟浮萍食草宜微風初
陣陣細雨又絲絲青紫渾身貴丹書下腹奇聆言如塞
耳失睡却皺眉喜怒龍王荅跳梁海鼈嗤村砧聲自斷
宮漏報何遲童子休投石田家水旱推

松月樓聽琴

笑踏王孫草來聽處士琴松風生遠壑嵐影涵疎林古
調誰能愛閒情自不禁泉鳴歸海意鳥語入山心座上
皆醒耳樽前獨整襟鍾期如入夢千載託知音

懷雲南

吾愛韓明甫平生不怨天持身同處女遐想便登仙
 陋巷簞瓢樂古家詩禮傳閑遊看麋鹿至理察魚鳶金榜
 題雖早雲衢步未前跨驢趨諫院簪筆侍 經筵肚裡
 藏千卷囊中澁一錢寧耽彭澤酒暫奏武城絃拍拍投
 林鳥亭亭出淤泥蓮聞君雷灌耳愧我雪盈顛碧澗心相
 照層峯日欲懸濁涇清渭合喬木女蘿纏歲久交能敬
 途窮志益堅促席尋常語高堂七十年龍門山疊疊鸞
 港水漣漣北闕猶回首東江遽泛船過庭彩衣舞入室
 廣袞連芳草新經雨孤村暮起烟幽懷今已遂後會更

羅秀集 卷三

無緣失侶松間鶴瀛洲夢幾圓

獻齋詩鈔卷之四

密山卞鍾運著

七律

龍壇夜泊

春水娟娟鏡面開
連天芳草故人來
百年如夢殘花惜
萬事關心白髮催
雙鳥微風同掛席
滿山明月獨登臺
臨江欲喚龍神語
吹罷清簫酌一杯

古寺

曹溪流水幾時回
淨土千年法殿頽
蠹蝕殘經空貝葉
劫過諸佛盡寒灰
一林啼鳥僧何在
滿院飛花客自來

門外斷碑無語立半磨風雨半青苔

病中

病中日月易蹉跎誰肯相尋到薜蘿
世事經來如意少秋光看盡感懷多
空階落葉風前舞遠塞寒鴻雨裡過
夢罷雲山歸未得滿園松菊近如何

題花岳禪房

緣溪白石路縱橫洞裏烟霞一界清
磬戛遠林歸靜寂塔高層嶂失崢嶸
孤僧說法松花落過客叅禪海月明
前度劉郎今不在摩挲壁上舊題名

漢北將臺

百尺層臺聳遠空
山門落日眼初窮
旌旗雲擁千峯樹
金鼓秋生萬壑風
天地卽今無戰伐
登臨自古幾英雄
邦家妙筭超前代
養得精兵佛教中

尹舫山廷瑞來訪江榭

此日逢君眼忽開
三旬淹臥大江隈
病如暗盜防猶入
睡似高人請不來
遠寺鍾聲衝雨至
二陵山色捲潮迴
沙鷗知我忘機否
白首閒情一釣臺

冷然竟違江上之約翌日獨向任處士亭子

蕭蕭黃葉客驂停
巖畔柴扉晚不扃
隔岸棹歌驚宿鷺
穿林漁火點疎星
莫歎盛世頭空白
難得窮途眼忽青

蕭子雲集卷四

欲借君家公子釣明朝鼓枻向東溟

送雲溪子

雲外青山去路長
停杯話別滿頭霜
孤城盡角收殘雨
斷壁楓林掛夕陽
自古誰能留逝水
臨歧不必問亡羊
多情最是天涯月
千里隨君到故鄉

凭欄

興到悠然拊素桐
映簾芳草又葱葱
松依斷壁千尋碧
霞吐斜陽萬縷紅
老去人生醒似夢
春來花事雨兼風
凭欄獨酌樽中酒
時看浮雲過太空

江樓酒熟忽憶白鷗道人

茶烟初歇酒新籌舒嘯臨風興轉幽落葉欲藏無底壑
斜陽多在最高樓江間水闊魚龍夕雲外天長鴈鷺秋
漁笛數聲紅蓼岸故人何處泛扁舟

和人咏鏡韻

徹底清光百鍊銅端陽鑄出大江中經來萬狀雲無跡
照得千年月滿空遠塞功名秋鑷白深宮恩寵曉窺紅
休將外貌看天下自古人心面不同

示訥叟

隴上歸來抱膝吟老槐空作滿庭陰隨風燕子爭高下
暝日花枝自淺深畢竟青山埋傲骨其如流水少知音

今宵留約清江月相對樽前一片心

北渚洞

都門只尺絕塵喧短杖來尋活水源
恠石長松城下路飛花啼鳥洞中村
浮生無事憂千歲斜日多情照一樽
清福知應天所惜春風閒鎖幾名園

竹籬爲風雨所倒書齋西庭與鄰家相通

茅簷竟日雨如麻半夜狂風捲竹笆
庭畔散懷常恨窄窓間遐矚更無遮
飛來一抹碧山色壓倒幾枝黃菊花
寄語西隣洪處士與君曾是舊通家

題雪眉上人小像

圓覺高僧白雪眉蒲團坐說大慈悲牟尼座下蓮千朶
菩薩瓶中柳一枝浩劫恆河終有盡浮生業海苦無涯
西流明月東流水看得尋常理莫知

菊下獨酌

采采黃花獨泛觴誰憐短髮白凝霜庭前落葉皆秋色
天際孤峯忽夕陽自古英雄多感慨中宵風雨一彷徨
世間不盡炎涼態北雁南來底事忙

寄雪翁

無語青山酒半醺隔林樵笛已斜曛百川赴海誰能禦
一鶴橫霄自不羣待我始憐窓下竹贈君何惜嶺頭雲

蕭蕭集 卷四

梅花倘解幽人意別後相思瘦幾分

松都懷古

統合三韓一世雄祇今陳跡雪中鴻
杜門洞裡穢留綠
善竹橋邊血尚紅
天命歸眞桑海變
山形依舊市朝空
傷心千載唯喬木
樵斧丁丁響遠風

善竹橋

橋頭下馬立秋風
像想前朝鄭侍中
自古只傳能化碧
至今那得不淪紅
牧樵皆說當時事
天地爲憐一段忠
死後伯夷曾未錄
周王猶是愧吾東

練光亭

關西多少好樓臺王儉城頭一泛杯
列岫鳳翔平地起大江龍舞遠天來
楊花兩岸春帆落燈火千村夜市開
試向長林回首望忙人猶自更徘徊

清川江有懷乙支文德

一帶清川一片城乙支猶自大功成
臨江擊鼓魚龍動乘夜擎旗鬼魅驚
野闊風雲皆陣勢秋深樹木亦邊聲
于今西土閒無事雨露榮麻樂太平

煬帝公然發虎符海東豪傑眼中無
成功不在兵多少應變終看將智愚
萬里鯀船來宛轉一江魚腹葬湏臾
執鞭曠代何由得白首風塵愧腐儒

大凌河古碑

并序

河邊有王盛宗二碑又有王平二碑其制度皆
相似土人謂之四同碑萬歷間兩人相繼守遼
前後百戰屹然爲東邊之保障屢降璽書嘉獎
輒樹碑而紀其事豐功茂烈照耀一世而王平
尤偉焉乃今龜頭剝落苔錢點綴穹然四笏如
相守於荒草亂石之間行人至有繫其馬者矣
欲問當時遺跡漠然無傳徒見河流而石立可
勝嘆哉

秋來殺氣壓空城此地曾鑒百萬兵春墾尋常鋒刃出

夜行恍惚鬼燐明
凌河流水英雄血
大野悲風戰鬪聲
片石至今猶可語
斜陽駐馬吊王平

姜女廟

河流欲作斷腸聲
姜女祠前一愴情
幾度眼穿愁絕塞
千秋魂去繞長城
石留步跡風霜老
壁揭宸章日月明
倘得天涯征客返
邊雲遠樹亦相迎

長城

一帶長城萬里雄
邊雲朔氣接秋空
區分夷夏秦皇帝
直截遼燕魏國公
峻嶺北來天設險
高樓南壓海無窮
後人莫作金湯看
歷代興亡傳舍同

蕭子雲集卷四

望洋店

長城秋色早來鴻一夜西風店樹空碣石雲生天半碧
扶桑日出海全紅望洋自愧同河伯失馬何須歎寒翁
自古禦邊無上策烟臺虛築戚南宮

和陳侍郎

用光

永平府韻

并引

侍郎示其永平府之作和之者卓海帆

秉恬郭

羽可

翥

黃樹齋

爵滋

皆海內之宗匠也永平府

古之孤竹國西漢爲右北平東漢爲盧龍縣夷

齊廟在府西北灤水上

漢代關防右北平至今雄鎮擁堅城盧龍不賣田疇義

射虎猶傳李廣名百戰山河餘古壘中宵鼓角動邊聲
西風隨馬來孤竹清聖祠前白日明

皇帝塚

富甯府古之五國
城有宋徽宗塚

漠漠黃沙北去轅宣和自壞宋乾坤南都悵望立宮返
五國荒涼廈屋存豈是中原無葬地可憐終古未歸魂
泉臺倘得逢懷愍老淚相看說恨冤

鍾城行營演武日呈節度使

勒馬千軍意氣豪碧油幢裏鷗鷺袍一聲羌笛旄頭落
萬里邊雲獵火高望重北門堅鎖鑰威行東海靜波濤
歸來鈴閣閑無事床上詩書伴六韜

大詩集卷之四

七

蕭子雲集卷之四

寄容少卿 照

一別燕山歲幾回西風引領意難裁
勳名世襲公侯爵威望廷推將相才
日月先從東海出梯航都赴北京來
金魚名洞巷裡梅花雪白首何當更舉杯

自會寧離發

壯遊北塞隔年還羸馬貂裘興未刪
滄海東臨方是水摩天南望更無山
孤村客到烟生樹故國書來雪滿關
賊世莫施邊圉備風如鳴鼓月如彎

利原途中

雲嶺迢迢倦客心南松田畔一披襟
晴天飛雨鯨噴海

六月寒風虎嘯林烽火斜陽千里信家書中路去年音
居民猶說尹丞相塞上勳名冠古今

送鄭君

文教之耽羅并序

自京而耽羅陸走千里海五之四如非仕宦及
放逐者誰肯汗漫跋涉不憚鯨波之險也秋史
金侍郎泣袂耽羅鄭君從焉不憚人之所憚也
殆將爲知己者死豈不毅然大丈夫也哉明發
之前夕斗酒十脰餞君於枇杷書屋斗橫月落
征駒蕭蕭鄭君拍余肩曰昔我浪跡南登漢挈
顛題名于白鹿潭上蜃樓蠓山有時來撼我夢

讀書卷之三

魂十年于今萬事茫茫明時關河乃有失路之
人白首鞭鐙忽作知途之馬寸心既許萬里只
尺一身靡惜滄波平地人生行止如萍如蓬海
中仙山天涯舊雨擊楫秋風興復不淺遂飄然
而去

滿空星斗自縱橫把酒臨風慷慨情夜半登樓仍月色
天涯送客忽秋聲窮途策馬層雲起滄海揚帆兩眼明
春日漢挈山上望燒餘芳草倍滋榮

南溪幽居

十里明沙路不迷疎籬編竹傍清溪樓頭木落晴天闊

浦口潮生遠岸低無奈四時秋易感從知萬物理難齊
幽禽似惜青山色每到斜陽盡意啼

東南溪

簾外羣峯碧欲浮閒庭芳草雨初收一溪流水渾忘語
萬縷明霞獨倚樓自古人人生誰不老況今時序又將秋
願君分半蘆花月待我清江買小舟

春日登南麓

滿城桃李錦成堆雨後青山絕點埃醉眼渾隨春水闊
風光爭趁晚烟來千艷耀日魚鱗動雙闕連雲鳳翼開
大道如天人似豆方知坐處是崔嵬

蘇東坡集卷之三

卽事

清溪飛雨淨苔痕
返照分明入遠村
一樹梅花人臥病
滿山松葉客敲門
閒雲天際遲遲過
幽鳥林間處處喧
樵笛莫愁歸去晚
會看新月破黃昏

宿南溪宅

耿耿孤燈客語明
秋窓夜氣逼人清
雲頭片月千山影
雨後長江萬里聲
荷鋤劉伶猶有累
窮途阮籍未忘情
世間何物非身外
苦被浮名誤半生

讀漢高本記

五星聚井入關春
歷數分明自有真
隻手乾坤開社稷

八年金鼓走風塵韓彭當世能驅使唐宋何君敢比倫
秦帝東遊天子氣不知庭畔縱觀人

臘月廿夜同東樊分韻

貂裘弊盡洛陽塵揮麈清談四座春到處流連忘甲子
今宵邂逅守庚申踈梅閣裡安貧士明月窓前不速賓
可笑如拳庭畔石借來寒雪欲嶙峋

自遣

初日蒼蒼上曉暉春城次第闢千門風雲流動山川氣
草木榮華雨露恩俊乂清時居鼎鼐鄉鄰樂歲列杯樽
欲尋靈境知何在處處惟聞百鳥喧

關雎集卷四

落花

老去年光易感情漫空紅雨又輕盈
當風葉底香何在
臨水枝頭影獨橫
蝴蝶夢殘春萬里
杜鵑聲苦月三更
天涯悵悵佳人別
一路芳塵碧草生

暮春

碧樹如烟好鳥鳴
白頭空憶少年情
飛花院落春風晚
細雨江村夕照明
勳業此生徒壯志
文章自古盡虛聲
閒臨流水茵芳草
溪友園翁話太平

灣館書懷

童心自惜白頭翁
浪跡天涯似轉蓬
夢裡家山千里遠

樽前春色二分空
長繩難繫西飛日
尺素誰傳北去鴻
爲問如烟原上草
古來埋沒幾英雄

中夜

獨對清樽意自幽
寒虫唧唧雨初收
風驅落葉鄉心轉
月滿高樓夜色浮
天地如何常作客
關河元不覓封侯
來時曾與青山約
縱彼無言也自羞

望京樓

陽春召我上高城
羈思樽邊一倍生
鄉信西來情更恻
京華東望眼空明
戍樓羌笛風中語
遠水漁船鏡裡行
陣陣歸鴻翻夕照
浮雲萬里是前程

自憐

床書拋却起彷徨回首鄉山淚兩行到老人情偏愛少
苦貧家道益思良一林明月蟲聲咽萬里寒雲鴈陣忙
堪歎蕭蕭枝上葉西風況復滿天霜

歸宿石山站

三日驅馳夢一場石山初霽泛新涼遠遊爭似臥遊好
去路還輸來路忙傾囊寒澹溪水淨解鞍征馬菜花香
噫噫天際南翔雁問爾何時過漢陽

寂寞

啼鳥飛花晝掩扉天涯寂寞送迎稀微風綠樹千村暖

細雨長江一夜肥獨對夕陽歌也嘯誰成春服咏而歸
如何世上多錢客不買青山買是非

登靜波門樓

年來世事日悠悠醉後雙眸隘九州天地東南誰倦客
關河西北有高樓三江龍氣千山雨一樹蟬聲萬壑秋
孤鶴褊褊何處去前宵我亦夢瀛洲

客窓

一疾邊城久滯淹每驚時序客愁添潮鳴遠浦能吞壑
木落他山忽入簾滄海最深終有底鉛刀雖鈍豈無銛
人間萬事渾忘却滋味羈窓是黑甜

蕭蕭集 卷四

徙倚

蒹葭極目夜蒼蒼徙倚非徒望故鄉萬壑風雲藏造化
一天星斗煥文章山光盡入詩中畫秋色先侵鏡裏霜
早菊籬邊猶未綻知應偃蹇待重陽

秋感

千林葉脫雨蕭颼點綴山光入小樓江闊清風吹短笛
雲歸明月照虛舟老雖無病難爲夜醉或長歌況是秋
多感天然庭畔石相看永日不回頭

蕭蕭

濁酒東隣典小琴蕭蕭短髮不勝簪雪藏老石峻嶒骨

月照疎梅冷淡心縱有神仙三島遠而無車馬一邨深
看來誰似南山色從古蒼然直到今

癸丑暮春集崔鏡山 必聞園亭

雲容麥氣愜人晴滿座奚囊擲地聲逸少帖中回舊歲
伯時圖裡悟前生行尋芳草春光暮坐對清樽世慮輕
落照千山留不得東天明月更多情

秋晚

咫尺紅塵懶往還門前流水碧潺潺虫聲在戶三秋晚
月影當樽萬事閒與我終身惟白髮令人回首是青山
隣翁爲說村家樂晚稻登場早菊斑

龍秀集卷四

江樓

蘆花雪白蓼花紅一上高樓萬慮空
野闊無邊身轉小天晴如洗眼初窮
寒鴻喚侶聲聲月歸艇乘潮葉葉風
自古英雄多混跡幾人今在釣徒中

城北屯賞桃花

城東烟景一谿賒來醉立都道士家
天上千年方結子人間三月始開花
和風吹送前宵雨朝日蒸成萬片霞
領得春光閒自在公門桃李莫相誇

錦圃來訪

缺月穿雲北斗橫一樽相對故人情
大江水落龍方蟄

古匣塵生劍自鳴
雪裡峯巒藏傲骨
風前樹木作虛聲
終知天地非長夜
曉色濛濛起遠城

雨後溪上

閑雲出岫暮禽回
雨歇平林絕點埃
浮世非無閒歲月
名區何限好樓臺
東山雅度春携妓
北海風流日泛盃
爲語園丁須努力
庭前花木及時栽

竹樓南歸

湖上西風去路脩
塵間萬事泛虛舟
行看謝眺青山近
時屆蘇仙赤壁遊
大澤魚龍秋偃蹇
平林鳥雀晚啁啾
豫章劍氣無人識
猶自中宵射斗牛

次寄長
詩

讀書集卷四

竹棲阻雨未行

幾巡樽酒幾詩箋
宛送當時孟浩然
我欲從之方臥病
子將隱矣若登仙
馳神雲水三千界
落魄風塵五十年
最是多情連夜雨
南江留得故人船

秋夜

疎燈耿耿照虛襟
床上丹鉛匣裏琴
欲訪仙山迷去路
誰憐華髮負初心
溪村幽僻秋先到
林雨霏微夜轉深
庭畔蒼松能偃蹇
風來時作老龍吟

送雪翁

看君鬢髮已蒼蒼
別後雲屏道路長
湖上春遊同一夢

樽邊秋色近重陽空山落葉乘風勢永夜清溪洗月光
千里隨君南去雁冥冥不待曉天霜

三月晦日華溪寺

漸聞水瀉兩峯間日暮禪扉尚不關龕裡佛如明月照
洞中僧共白雲閒青山一入忘塵累白髮相看惜醉顏
花雨諸天春自在餞春休間幾時還

殘菊

一去淵明竟莫追千秋寂寞臥東籬三春桃李休相詫
九月風霜不敢欺處世終須看晚節當今無復愛奇姿
餘香或恐渾塵土衰葉殘花守古枝

由北城循西岡

纔登北麓又西岡春到閒人便似忙
濃柳名園鶯語暖落花官道馬蹄香
樽前忘却身全老天上悠然日漸長
最愛東風難畫處水光山色欲斜陽

三浦崔氏臺

倚杖悠然遠望開烟光萬里赴高臺
帆懸赤日從天降潮蹴青山捲地來
往事千秋碁亂局浮生一粟酒深盃
滿江風浪無時定誰是當今濟世才

感舊

五十年前賦遠遊歸來萬事泛虛舟
心爲形役千莖髮

命與仇謀一弊裘奔騰風雨歐陽夜搖落江山宋玉秋
唾壺擊破仍長嘯起視寒虹射斗牛

過高陽哭崔生元祥墓

玉樹僊然那可忘忽忽客馬駐斜陽夢驚幾夜空樑月
淚灑孤墳宿草霜海外誰傳懸度國世間難得返魂香
滿山落葉無人掃何忍秋風老白楊

田家

飯成新麥菜登瓜又向東隣濁酒賒繞樹禽聲朝雨歇
入簾山色夕陽斜人生難掃頭邊雪世事空翻浪裡花
願借翺翔雲際鶴十洲佳處朗吟過

蕭子雲集卷四

贈楊潭

少向紅塵謾驅馳
祇今華髮滿頭垂
淺深隨意三盃酒
勝負無心一局碁
菽粟文章誰定價
烟霞痼疾世難醫
數間破屋終南下
流水潺湲遶竹籬

夜宿三台洞憶雲南

蒼松白石洞門深
盡日何曾俗客臨
將近中元明月色
平分午夜遠鐘音
煙霞隨意開三徑
城市回頭隔一林
恨不雲南同此席
黃花須待更來尋

歎齋詩鈔卷四

